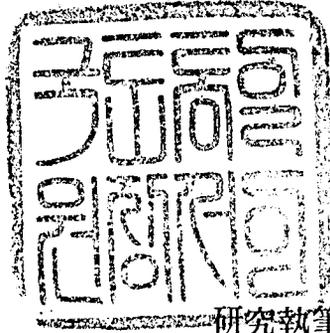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研究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 및 政策樹立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 社會主義國家의 經濟改革

- 東歐諸國 및 中共의 經濟改革 推進過程과  
北韓의 經濟改革 可能性을 中心으로 -



研究執筆：趙 明 均  
(調查研究室 事務官)

國 土 統 一 院  
調 查 研 究 室



# 目 次

I. 머리말 .....	3
II. 中央執權의 計劃經濟體制와 經濟改革 .....	9
1. 經濟體制 .....	9
2. 社會主義經濟體制的 類型 .....	12
3. 傳統的 中央執權의 計劃經濟體制的 特徵 .....	16
4. 中央執權의 計劃經濟體制的 限界와 經濟改革 .....	22
가. 中央執權의 計劃經濟體制的 限界 .....	22
나. 經濟改革 .....	26
III. 東歐諸國과 中共의 經濟改革 推進過程 .....	30
1. 概 觀 .....	30
가. 東歐諸國 .....	30
나. 中 共 .....	38
2. 改革推進의 障礙要因 .....	45
3. 各國別 經濟改革 推進內容 .....	50
가. 유고슬라비아 .....	51
나. 헝가리 .....	59
다. 中 共 .....	67
4. 結 論 .....	78

IV. 北韓의 經濟改革 可能性과 展望 .....	84
1. 最近 北韓의 經濟政策 變化動向 .....	84
2. 經濟改革 可能性.....	88
3. 展 望 .....	95
V. 맺 음 말 .....	106
參 考 文 獻 .....	110

## I. 머 리 말

1917年 社會主義革命과 함께 蘇聯에서 始作되어 스탈린에 依해서 基本骨格이 完成된 「傳統的 中央執權의 計劃經濟體制」 (Traditional Centralized Planning Economy)는 二次 世界大戰이 끝나는 것을 前後해서 蘇聯이 占領한 東歐諸國 및 北韓에 移殖되었으며, 中共은 이와 類似하면서도 더一層 「教條主義」的인 經濟體制를 採擇하였다. 生産手段의 國家 내지는 集團所有, 計劃에 依한 經濟管理, 下向的 指令에 依한 統制經濟 等を 基本的 性格으로 하는 中央執權의 計劃經濟는 그 導入初期에 그것을 收容한 國家들이 終戰後의 어려운 經濟狀況속에서 短期間內에 産業化, 完全雇傭, 軍事力 增強, 物價安定 等の 成果를 이룩하는데 많은 寄與를 했으나, 産業化가 進行됨에 따라 經濟構造가 複雜해지고 國民들의 生活水準 向上에 대한 欲求가 增大하게 되자, 社會主義國家들의 經濟狀況은 傳統的 中央執權의 計劃經濟體制로서 다룰 수 있는 限界를 벗어나게 되었다.

즉, 中央執權의 經濟體制 特有的 「革新動機」 (Innovation Initiative) 缺如에서 오는 非能率과 技術革新의 鈍化에 의해 生産性は 低下되었으며 여기에다가 勞動力의 不足, 農業의 落後, 西方과의 軍備競爭에 따른 過重한 國防費 負擔 등이 겹쳐 經濟成長은 顯著하게 鈍化되었다.

이와같은 現狀은 東歐諸國에서는 이미 1950年代 初盤부터 發生하였으며, 北韓과 中共도 1960年代에 나타나기 始作했으나 「自力更生」原則에 의해 눌러 오다가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는 길으로 드

리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深刻해졌다.

그러나 이와같은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의 修正 즉 經濟改革이 必要했음에도 不拘하고 大部分의 社會主義國家들의 政治指導者들은 이 事實을 제대로 認識하지 못하였다.

또한 認識했다고 하더라도 經濟改革을 推進하는 경우 惹起될 것으로 豫想되는 여러가지 政治的 副作用에 대한 不安感과 改革에 의해서 既得權益에 損喪을 입게되는 特權官僚階層의 反撥 등 여러가지 「障礙要因」들 때문에 包括的인 經濟改革을 實施하지 못하고 短編的, 部分的으로 行政組織을 改編하거나 一部 「經濟政策」내지는 「經濟管理」過程을 修正하는 消極的인 經濟改革만을 推進해 왔으며 그나마도 政治指導者들과 國民들의 理解와 支持 不足으로 오래가지 못해 다시 以前의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로 돌아가곤 했다.

그런중에서도 1948년에 「코민포름」(COMINFORM)에서 脫退한 後 獨自的인 經濟體制를 形成해 가면서 1965년에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Socialist Market System)를 採擇한 「유고슬라비아」와 東歐 CMEA (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國家들 中에서는 1968년에 「新經濟機構」(NEM; New Economic Mechanism)를 採擇함으로써 「市場指向的」經濟政策을 追求해 오고 있는 「헝가리」가 상당히 幅 넓은 經濟改革을 推進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78년 鄧小平의 執權以後 「實用主義的 路線」을 擇하여 內部的으로는 市場과 價格機能의 導入, 對外的으로는 積極的인 開放政策을 推進하고 있는 中共은 아직 始作 段階이기는 하지만 「유

고슬라비아」 및 「헝가리」 못지 않은 意慾的인 經濟改革을 推進하고 있으며, 蘇聯도 지금까지는 消極的인 經濟改革만 여러차례 實施하여 왔으나 經濟官僚 出身인 「고르바초프」( Gorbachev )가 執權한 後부터 아직 分명한 輪廓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보다 積極的인 經濟改革에 상당한 關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1970年代 後半부터 深刻한 經濟的 어려움에 逢著한 其他 東歐國家들도 1980年代 初半부터는 보다 眞摯하게 經濟改革의 必要性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비록 失敗로 끝나긴 했지만 1980年度의 「폴란드」의 經濟改革은 가장 包括的이고 急進的인 것이었으며 「루마니아」, 「불가리아」등도 앞으로 헝가리의 NEM으로 나아갈 수 있는 漸進的인 經濟改革을 實施中에 있다.

이와같은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改革은 西方으로 부터 많은 關心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는 一次的으로 經濟改革이 社會主義國家들의 內部的 「經濟效率性」을 增大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그들의 「對外開放政策」의 擴大에 依해 「東·西間 經濟協力」의 機會가 많아지고 그 過程에서 兩 陣營間의 「緊張緩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安定機能」( Security Function )을 期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의 경우는 그들이 20年 以上 經濟改革을 꾸준히 推進할 수 있었던 「背景」과 「成果」 그리고 「問題點」등에 대해서 西方은 勿論 他東歐諸國에게 하나의 實驗「모델」로서 研究의 對象이 되고 있다.

韓國도 社會主義國家들 특히 中共의 經濟改革에 대하여 最近들어 비상한 關心을 갖고 學問的 研究는 勿論 企業이나 政府의 次元에서도 多角的으로 銳意 周視하고 있다.

韓國이 關心을 갖는 理由로는 經濟協力을 통한 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增進과 새로운 輸出市場 開拓을 期待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그들의 經濟改革 움직임이 北韓에 어떠한 影響을 줄 수 있느냐, 나아가서는 北韓이 經濟的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經濟政策이나 體制에 어떠한 變化를 摸索하게 될 경우 어느 方向으로 推進될 것이냐 하는 점을 他社會主義國家들의 經驗을 통해서 比較 展望해 보기 위한 것도 중요한 理由라고 하겠다.

北韓은 1970年代 後半以後 內部的으로는 「經濟管理機構」의 改編, 「物質的 誘因」을 包含한 「獨立採算制」 實施의 強化 등을 推進하고, 對外的으로는 西方과의 「經濟協力」과 「對外貿易」의 強調 등 經濟政策과 經濟管理面에서 過去 어느 때보다도 많은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實質的인 面에 있어서는 社會主義國家들 中에서 北韓이 그들의 既存體制의 根本的인 變化, 즉 經濟改革에 가장 消極的이라고 보는 것이 一般的 見解이다.

그 理由는 北韓이 固守하고 있는 傳統的 中央執權의 計劃經濟體制는 勿論 「唯一 主體思想」에 의해 支配되는 非合理的 政治社會體制가 經濟改革을 받아 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며, 특히 韓半島의 「赤化野慾」에 따른 과도한 軍事費 負擔, 韓國에 대한 經濟力 劣勢의 變명으로 내세우는 「自力更生」, 金日成의 現 經濟體制에 대

한 過信 등이 北韓經濟가 包括的인 經濟改革을 必要로 하면서도 推進하지 못하는 重要한 要因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現在의 金日成 體制下에서 北韓의 위와 같은 態度에 어떤 變化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 어떤 뚜렷한 動機도 나타나질 않고 있다.

그러나 北韓經濟가 당분간은 根本的인 變化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980年代에 들어와서 繼續 停滯狀態에 있는 經濟狀況이라든지, 점점 높아져가는 北韓住民들의 生活水準 向上 欲求, 「金正日 體制」의 基盤確立 必要性 등의 要因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現在까지 實施해온 것과 같이 內部 經濟管理의 效率性을 增進시키기 위한 政策的, 戰略的 變化를 摸索하고 이것이 累積되면서 長期的으로는 經濟體制의 根本的인 面에 있어서도 變化가 일어날 수 있는 動機와 可能性 또한 完全히 排除할 수 없다.

그리고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北韓이 經濟改革을 推進하고 對外經濟開放을 擴大한다면 이는 北韓社會內에 合理的 思考를 增進시켜 韓半島의 緊張緩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바 「平和的 統一」을 指向하는 韓國으로서는 當然히 北韓의 그러한 變化를 期待하는 것이며 그것을 促進시킬 수 있는 政策을 研究해야 할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稿는 北韓의 經濟改革의 動機와 可能性 程度 및 推進方向과 時間的 水準을 判斷하기 위한 比較 接近 方法으로서 「유고슬라비아」 및 蘇聯, 東歐 CMEA 國家들과 中共의 經濟改革 動機, 推移, 問題點 등을 살펴보고, 그들의 經濟改革 經驗에서 얻어

지는 結論이 北韓에는 어떻게 適用될 수 있는가를 比較해 보는데  
그 目的이 있다.

## Ⅱ.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와 經濟改革

### 1. 經濟體制

모든 經濟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얼마만큼 「生産」할 것인가, 生産된 財貨와 用役을 消費와 資本蓄積間에 또는 各 經濟主體에게 어떻게 「分配」할 것인가 그리고 「對外經濟協力과 交流」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基本的 課業을 遂行해야 한다. 이와 같은 課業을 各 經濟主體는 中央의 計劃이나 統制없이 自律的으로 遂行할 수도 있고, 完全한 中央統制下에서 遂行할 수 있으며, 두가지의 混合形態로 遂行할 수도 있다.

그런데 各 社會가 어떠한 形態를 採擇하느냐 하는 것은 그 社會의 「行動規律」 및 「經濟的 思考方式」에 따라서 決定되며, 具體的으로 經濟的으로 確立된 「制度」( Institutions )<sup>1)</sup>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單純한 制度의 集合이 「經濟體制」를 形成하는 것은 아니고 그 制度들이 상당기간동안 一貫性 있게 持續되어야 經濟體制를 形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同時에 끊임없이 發生하는 經濟環境 條件의 變化에 適應해 나가기 위해서 社會가 어떠한 方法을 動員하는가 하는 「動態的」側面도 經濟體制의 主要한 要素가 된다.

---

註 1) 이는 財產所有, 企業, 家計, 政府, 貨幣, 稅金, 計劃, 勞動組合 等の 形態로 나타나며 經濟的 慣習, 例를 들면 Tip에 對한 慣習도 重要한 制度의 하나이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쾨바르트」( Sombart, W. )는 “經濟體制라 함은 ① 特定の 經濟精神에 의하여 支配되고 ② 特定の 秩序와 組織을 가지며 ③ 特定の 技術을 使用하는데 있어서의 精神的 統一體로서 事由된 經濟樣式이다”<sup>2)</sup> 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經濟活動을 構成하는 要素는 「經濟精神」, 「經濟秩序」 및 「技術」인데 이를 統一的으로 把握한 것이 經濟體制라고 본 것이다.

한편 各 「社會經濟」( Social Economy )<sup>3)</sup> 가 採擇할 수 있는 特定の 經濟精神, 經濟秩序 및 技術은 歷史的으로 끊임없이 變遷하여 왔으며, 따라서 經濟體제도 近代以後에만 「資本主義」, 「社會主義」, 「共產主義」 그리고 「混合經濟體制」等 多樣하게 여러種類的 型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多樣하게 불리우는 各 經濟體制는 어떠한 基準으로 區分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자.

위의 「쾨바르트」의 경우는 앞에서 說明한 대로 經濟體制를 區別하는 基準으로서 經濟精神, 秩序와 組織, 技術을 들고 있다. 또한 「마르크스」( Mark , K.)는 經濟體制를 區別하는 3大 基準으로서 「經濟精神」, 「生産手段의 所有形態」, 「經濟的 配分決定機構」를 들었다.

---

註2) W. Sombart, Die drei Nationalökonomien, 1930.

經濟學大辭典, 서울: 박영사, 1974, p.130. 에서 再引用

한편, “經濟精神, 秩序, 技術”은 “制度”와 같은 意味로 理解할 수 있다.

3) 各 經濟主體가 相互 依存的으로 活動하는 經濟

이러한 것들을 考慮했을 때 經濟體制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基準에 의해서 區別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4)</sup>

첫째, 社會經濟가 生産要素의 效率的 利用, 公平한 所得分配를 保障하기 위해서 어떠한 制度를 利用, 各 經濟主體의 活動을 「統合」하느냐에 따라서 「傳統的 經濟體制」, 「市場經濟體制」, 「指令經濟體制」로 나뉘어 진다.

둘째, 「生産手段의 所有形態」에 따라서 「資本主義 經濟體制」, 「社會主義 經濟體制」, 「混合經濟體制」로 區分된다.

이때 資本主義 經濟體制는 市場經濟體制,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指令經濟體制라고 볼 수 있으며, 混合經濟體制는 市場經濟體制와 指令經濟體制의 二重의 要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1936-45年間의 「나찌」(Nazi)下的 獨逸은 「資本主義的 指令經濟體制」, 1950年以後 「유고슬라비아」와 1960年代 後半以後 「헝가리」는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로서 混合經濟體制的 한 例라고 볼 수 있다.

以上の 論議는 學問的으로 「比較 經濟體制論」에서 論하는 것이고 現實的으로는 蘇聯, 東歐諸國, 中共 其他 共產國家의 經濟를 社會主義 經濟體制라고 부르며, 美國, 日本, 西歐諸國의 經濟를 資本主義 經濟體制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嚴密하게 말해서 現實의 經濟는 모두 混合經濟體制라고 해야 할 것이다.

---

註4) G. Grossman, Economic System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74, pp. 15-22.

한편, 經濟體制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用語로서 「經濟機構」(Economic Mechanism)가 있다.

經濟機構는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生産手段의 所有形態 및 統合機構에 따라 區分된 經濟體制가 具體的으로 計劃過程, 資源 및 產品의 分配, 成果指標, 刺戟手段, 財政·金融의 흐름, 價值基準 등으로 어떠한 方法을 사용하는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sup>5)</sup> 北韓이 자주 사용하는 「經濟管理」내지는 「經濟的 空間」과 類似한 概念으로 볼 수 있다.

## 2.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類型

歷史的으로 볼 때 社會主義는 古代의 「유토피아」思想이나 「空想的 社會主義」에서 부터 「마르크시즘」(Marxism), 「레닌이즘」(Leninism)에 이르기까지 千差萬別로 區分될 수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一意的으로 概念 規定한다는 것은 極히 어려운 일이다.

단지, 앞에서 說明한 經濟體制 分類 基準을 中心으로 資本主義 經濟體制와 比較하여 相對的 概念으로 說明한다면 첫째, 生産手段이 國有化 또는 共有化 되어 있고, 둘째, 資本主義的 企業家 및 勞動者는 存在하지 않으며, 셋째, 利潤動機에 의하여 營爲되는 生産과 消費를 止揚하고 그 대신 中央執權當局의 人爲的 操作에 의한 計

---

註5) M. Bornstein, "Improving the Soviet Economic Mechanism", Soviet Studies, Vol.37, No.1, Jan. 1985, pp.2-3.

劃으로 生産과 消費를 直結시킴으로써 經濟의 均衡을 期하려는 經濟體制라고 說明할 수 있다.<sup>6)</sup>

그러나 이 概念規定도 단지 理想的인 것이지 社會主義를 標榜하는 國家들의 現實의 經濟體制가 그 特徵을 完全히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各 國家마다 서로 다른 類型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이 多様な 現實의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理解하는 데는 「빌친스키」(Wilczynski, J.)가 經濟의 管理組織과 資源配分の 側面에서 分類한 다음과 같은 類型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sup>7)</sup>

① 中央執權의 行政管理體制型 (The Bureaucratic Centralized Model)

이 類型은 經濟計劃과 管理를 中央計劃當局이 掌握하고 下部機關은 하등의 裁量權도 없이 執行만 한다. 모든 生産指標는 物量單位로 行하여 지는데, 1970年代까지는 「알바니아」와 北韓이 이 類型에 속했으나 最近 北韓은 조금씩 이 類型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② 計量計劃 管理體制型 (The Planometric Centralized Model)

이 類型은 行政命令에 의한 計劃의 樹立이나 執行代身に 受

---

註 6) 李承潤, 東歐共產諸國의 經濟體制變化에 대한 研究, 서울: 國土統一院, 1980, pp.10-11.

7)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2nd ed., Chicago: Aldine, 1972, pp.23-25.

理的 方法에 立脚한 會計方式의 計劃을 使用한다. 즉 經濟資料를 蒐集, 分析, 檢出하는데 「컴퓨터」를 使用하며 同時에 投入最小化와 算出極大化를 滿足시키는 計劃을 얻기 爲해 수많은 方程式을 利用하고, 最適價格 역시 「컴퓨터」에 依해서 計算해 낸다.

이 類型下에서는 下部 行政組織과 生産單位에게 生産活動과 價格 面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裁量權을 賦與한다.

理論上으로는 이 類型이 相當한 水準의 彈力性和 資源의 最適配 分을 保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實際적으로는 그러한 效果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컴퓨터」가 그러한 機能을 遂行할 수 있을 만큼 開發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모든 經濟單位의 最適化를 保障할 수 있을 程度의 方程式과 價格을 作成한다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고, 現實의 經濟가 「컴퓨터」가 풀어낸 公式처럼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 ③ 制限的 分權化 模型 (A Selectively Decentralized Model)

이 類型下에서는 經濟命令을 下達하는 中央機關으로서의 行政機關이 存在하지만 中央計劃 指標의 數는 縮小되며, 責任과 權限이 어느정도 地域單位 下部機關과 企業에 委任되고 있다.

또한 收益性이 企業의 主要한 成果指標가 되며 價格은 生産原價를 基礎로 하여 決定된다. 그러나 實際로는 生産과 消費의 均衡을 維持하기 爲해서 中央計劃當局의 自意에 의해 操作된다.

그리고 이 類型은 制限된 範圍內的 企業의 「이니셔티브」(Initi-

ative)와 「消費者選擇」(Consumer's choice)을 認定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資源配分이 「稀少性原則」에 依해서 效率적으로 이루어질 정도는 아니다.

現在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헝가리」를 除外한 大部分의 東歐諸國이 이 類型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市場補完型 (Supplemented Market Model)

이 類型下에서 經濟는 原則적으로 市場機能에 依해서 움직여지고 價格은 市場의 需要와 供給의 움직임을 反映하며, 長期的으로만 巨視的 眼目에서 計劃當局에 의해서 調整된다.

價格은 企業이 그들의 利潤을 極大化하려는 活動의 基準으로서 作用되며 消費者 選好에 의해 資源의 配分이 決定된다.

따라서 中央計劃의 機能은 크게 減少되고 그 性格이 「오타시크」(Ota Šik)의 表現을 빌리면 「指向計劃」(Orientation planning)으로서 예컨대 이 類型下에서 計劃은 消費와 生産 또는 서로 다른 生産部門間的 基本的 調整이나 主要 開發事業을 計劃하는 機能만을 擔當한다.

또한 一部 生産手段의 私유가 許容되며, 「서어비스」部門 및 私的 經濟活動의 生産的 機能이 認定된다.

그러나 이 類型을 擇하고 있는 國家가 앞에서 說明한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拋棄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東歐諸國中에서 「알바니아」만이 第1類型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第4類型에는 「유고슬라비아」를 꼽을 수 있으나 「헝가

리」가 거의 第4類型에 接近해 가고 있다. 나머지 東歐諸國들은 대개 第3類型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最近 競爭的 市場機能을 擴散, 適用시킴으로서 價格機構의 資源配分 機能을 經濟計劃에 援用 하려는 움직임이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中共도 1978年以後 第4類型에 가까운 幅넓은 經濟改革을 推進中에 있다.

### 3. 傳統的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의 特徵

社會主義 國家들이 經濟改革을 推進하게 된 動機나 進行過程 및 그 問題點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傳統的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의 基本的 特徵을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傳統的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라 함은 前述한 바와 같이 二次 世界大戰이 끝나는 것을 前後해서 東歐諸國에 移殖된 蘇聯式 또는 「스탈린」式 國家的 獨占 經濟體制를 말하는 것이며, 中共과 北韓은 이와 類似하지만 보다 더 教條主義的인 閉鎖的 經濟體制를 採擇하였다. 여기서 「傳統的」이란 뜻은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改革의 對象이 된 既存의 經濟體制란 意味로 使用한 것이다.

이와같은 傳統的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의 特徵은 經濟體制의 分類基準이나 經濟改革의 要素를 中心으로 살펴봤을 때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다.

#### ① 生産手段의 所有形態

工業部門의 경우 모든 主要한 企業은 國有로 되어 있고 個人所

有는一體許容되지 않는다. 農業部門은 工業部門과 同一한 國營農場과 國家의 統制를 받는 協同的 所有 그리고 極히 一部分의 個人所有 形態로 되어 있다.

그러나 個人所有라 할지라도 土地改革 以前의 原所有者가 繼續權利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沒收되어 他人에게 分配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完全히 國家의 統制를 벗어난 自由耕作, 販賣가 許容되는 것은 아니다.

## ② 意思決定 體系

傳統的 中央計劃經濟의 特徵을 한마디로 要約할 때 普通 中央執權的 物量的 計劃體制라고 한다. 즉 計劃構造는 下向的 階層構造이며 計劃의 性格은 物量的 指令計劃이다.

意思決定에 있어서 價格과 財政體系는 受動的 役割만 遂行하게 되며, 政府는 價格과 貨金政策을 통해 消費者 市場과 勞動市場을 統制한다.

## ③ 價格決定

商品과 「서비스」價格은 計劃作成을 손쉽게 하고 計劃 遂行을 統制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行政的으로 操作된다.

工業部門의 價格은 補助金과 稅金을 利用하여 原價에 一定率의 利潤을 더한 水準에 固定된다. 農業部門의 價格은 政策的으로 工產品에 比해서 낮은 水準으로 策定된다.

消費者價格은 稅金, 補助金, 計劃利潤率에 依해 市場에 在庫가 남지 않을 만큼의 水準으로 生産者價格과 다르게 決定된다.

資本은 中央에서 配分되고 投資는 大部分 政府豫算의 補助金 形態로 이루어지므로 利子는 存在하지 않는다.

基本賃金과 俸給은 勞動의 質과 作業量에 따라 定해진 固定賃金制이다. 換率은 對外貿易이 政府機關과 마찬가지로인 特殊輸出入企業에 의해 이루어지고, 國內價格은 稅金, 補助金에 의해 國際價格과 分離되어 있으며 任意的 複數換率이 使用되고 있기 때문에, 國內外的 經濟를 連結해 주는 役割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④ 勤勞意慾 刺戟手段

工業部門은 基本給에 計劃目標의 達成程度에 따라 成果給 또는 獎勵金을 보태서 支給하거나, 罰金を 除하는 「算出作業制度」(Piece-work System)<sup>8)</sup>를 쓰고 있으며, 農業部門은 割當收買分 以上을 높은 價格으로 收買하는 「二重價格制度」를 使用하고 있다. 可及的 所得과 支出이 均衡을 이루도록 消費者價格이 調整되고 있으며, 支出後 남는 所得은 大部分 國家에 強制貯蓄으로 吸收된다.

이같이 物質的 刺戟이 널리 使用되고는 있으나, 理念的으로 所得 不平等을 容認할 수 있는 範圍內에서 制限的으로 使用되고 있다.

#### ⑤ 競爭

企業들은 市場을 통한 「水平的」關係보다는 相對的 階層에 따른 「垂直的」關係를 가지고 있다. 또한 企業은 破産하는 경우가 없

---

註8) Simple piece rate라고도 하며, 勞動者의 賃金所得을 產出高에 比例케 하는 賃金制度로서, 能率獎勵的 機能을 가진 能率給의 一種이다.

없으며, 生産과 流通機關들은 大部分 그 分野에 있어서 地域的 내지는 全國的 獨占을 하고 있기 때문에 競爭은 단지 計劃을 어느 程度 達成하느냐에 있어서만 存在한다.

그러나 例外的으로 小規模 自由市場 - 合法的, 半合法的, 非合法的 - 에서는 競爭이 存在하고 있다. 資本主義 概念은 아니지만 勞動市場에 있어서도 住宅, 子女教育 等 賃金外 惠澤을 내건 競爭이 存在하고 있으나, 勞動을 商品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極히 限定된 範圍內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⑥ 對外貿易

社會主義 經濟體제의 對外貿易은 資本主義 國家間에 일어나고 있는 比較生産費 等に 立脚한 分業, 資本·資源交流 等の 本質的이며 多面的인 目的을 實現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傳統的 中央計劃 經濟의 對外貿易은 經濟計劃에 提示된 機械와 資源等の 物資가 國內에서 生産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外國에서 輸入하며, 그 輸入에 對한 反對代價로서 國內 生産品을 輸出하는 狹義의 「求償貿易」 形態에 不過한 것이다.

그 制度面에 있어서도 傳統的 中央計劃經濟는 外國貿易이 國家에 依한 獨占運營 形態로 되어 있다. 國內價格은 海外市場價格으로부터 完全히 隔離되어 있으며 大體로 社會主義國家들의 貨幣는 資本主義經濟의 貨幣에 比해 過剩評價되고 있어, 이와같은 換率의 非合理性을 解決하기 爲해 基本公正換率, 旅行者換率, 送金換率, 特定商品換率 等の 複數換率 制度를 實施하고 있다. 關稅는 다른 手段을 통해서 財政收入을 確

保하고 國內産業을 保護할 수 있다고 보고, 原則的으로 賦課를 考慮하지 않는다.

前述한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의 主要한 特徵은 「生産手段의 國有 또는 集團所有」, 「經濟的 意思決定의 中央集中」, 「指令에 의한 經濟統合」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經濟制度가 반드시 否定的 效果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部分的으로 위 特徵이 必要한 社會經濟도 있다. 따라서 資本主義 國家에서도 特定한 社會目標의 達成을 위해서 不可避한 경우 部分的으로 위와 같은 要素들을 導入하기도 하며 그 結果 現實의 經濟는 大部分 混合經濟體制라고 보는 것이 妥當한 것이다.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所有形態에 있어서 大部分의 資本主義 國家에서도 國營 또는 公營企業이 相當數 存在하고 있으며, 個人的 私的 所有라 할지라도 그 使用은 많은 公共機關과 法律에 依해서 賦課된 制限과 規制에 따른 統制를 받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最近 많은 資本主義 國家에서는 適定한 補償이 주어지지 않는 收用權이 擴大되고 있다. 이와같이 資本主義 國家에서 制限的이긴 하나 財産의 國有 또는 集團所有를 導入하고 있는 까닭은 그 社會經濟의 基本目標가 保有하고 있는 財産의 效用을 增大시켜야 하는 것인데, 國有 또는 集團所有일 境遇, 社會의 多樣한 價値와 目標를 國家의 次元에서 指向하는 目標로 統合, 財産의 公的 效用을 增大시키는데 있어서 能率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指令에 의한 經濟統合도 그 指令이 完全히 合理的으로

이루어만 진다면 各 經濟主體의 行動을 統合해서 總體的으로 分명한 目標을 向할 수 있겠끔 動員하는데 다른 統合機構보다 能率的이다.

또한 經濟的 意思決定의 中央集中은 公共利益을 保護하고 增進시키는데 있어서 큰 利點을 갖고 있다.

社會經濟內에서 公共利益에 대한 需要가 커질수록 公共利益과 特定한 個人이나 集團의 利益이 衝突할 可能性은 높아진다. 이와 같은 境遇는 外部經濟내지 不經濟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 例로써 댐 建設의 境遇 이에 따른 下流地域의 洪水豫防과 같은 外部經濟效果가 있으나 收益者에게 댐 建設費用을 負擔시키거나, 그 代價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私的인 計算으로는 댐 建設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政府가 이 댐을 建設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外部 不經濟의 境遇는 公害를 들 수 있다.

그리고 意思決定의 中央集中은 市場機能에만 依存할 境遇 發生할 수 있는 獨占이나 農家所得 低下와 같은 否定的 現象을 防止하고 治癒하는데 있어서도 效果的이다.

한편 意思決定의 中央集中은 다른 動機에 의해서도 採擇하게 되는데 그中 代表的인 것이 莫強한 情報處理 能力을 가진 「컴퓨터」의 登場이다. 왜냐하면 意思決定의 集中化는 相當한 情報處理能力이 要求되는데 「컴퓨터」가 그 問題를 解決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sup>9)</sup>

---

註9). Grossman, Op. cit., pp.31-33.

이와같은 利點 때문에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도 資源配分을 迅速히 그리고 大規模로 해야 할 必要가 있는 境遇, 예컨대 戰時나 初期産業化 段階에서는 相當한 成果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는 平常時 經濟狀況에서는 위와같은 利點보다도 社會主義國家들이 그 體制를 導入한지 얼마되지 못해 經濟改革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構造的 矛盾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4.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的 限界와 經濟改革

##### 가.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的 限界

傳統的으로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는 그 初期에 共產國家들이 二次世界大戰으로 破壞된 産業施設을 復舊하고 높은 經濟成長을 達成하는데 그 特有的 強制的 動員을 利用하여 많은 成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中央執權的 計劃은 當初 目標로 했던 消費와 資本蓄積 그리고 各 生産部門間的 「均衡」을 제대로 保障해 주지는 못하였다.

그 理由는 첫째로 中央執權當局은 모든 企業이 責任지고 達成해야 될 計劃指標를 下達하는데, 時間이 지날수록 「計劃指標의 數」는 점점 더 增加하게 되고 結局 計劃機關이나 企業이 감당할 수 없을 程度로 불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企業水準의 「刺戟體系」( Incentive Mechanism. )가 勤勞者나 管理者로 하여금 生産性を 높이기 위해 全力을 傾注하게끔

動機를 賦與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需要를 考慮치 않은 生産, 中央으로 부터 計劃指標을 有利하게 받기 위해 生産實績은 낮추고 投入資材 所要量은 늘려서 하는 虛偽報告 등이 蔓延했으며 이에 따른 資源配分の 歪曲과 浪費가 發生했다.

세째, 위와같은 理由로 中央當局은 各 部門間的 均衡을 保障할 수 있는 計劃樹立에 必要한 正確하고도 充分한 「情報」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情報不足狀態에서 樹立된 經濟計劃은 經濟狀況을 점점 더 惡化시켜 갈 뿐이었다.

특히 어느 經濟體制이건 經濟的 意思決定에 가장 基本이 되고 重要한 情報은 「價格」인데 中央執權의 計劃經濟體制는 價格을 市場에서 需要와 供給의 條件에 의해서 決定되는 稀少性의 原則 내지는 利潤動機의 價格 代身 計劃當局이 計劃作成 段階에서 消費와 生産, 各 部門間的 均衡을 保障하기 위해서 人爲的으로 操作한 價格을 使用했기 때문에 中央執權의 經濟計劃은 애당초 現實의 經濟와는 동떨어지게 될 要素를 다분히 안고 있었다.

위와같은 理由로 社會主義 國家들은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問題點에 逢著하게 되었다.<sup>10)</sup>

大部分의 社會主義 國家들은 産業化 初期段階에 鐵鋼, 電力, 重機械 等 基幹産業에 置重했는데 이 「重工業 優先政策」은 輕工業과 農業 그리고 下部産業構造의 犧牲위에서 推進되었으며 産業化가

---

註 10) P. G. Hare, H. K. Radice, W. Swain, eds., Hungary: A Decade of Economic Reform,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1, pp. 5-6.

相當水準까지 達成된 後에도 그 傾向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重工業部門은 1950年代 初半까지만 해도 그 生産範圍나 適用技術의 種類가 比較的 分明했기 때문에 計劃에 의해서 管理하는데 큰 問題點이 없었다. 그러나 傳統的 中央執權의 計劃經濟 特有의 「外延的 成長政策」 때문에 重工業部門은 그 數나 規模가 점점 커갔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技術革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重工業部門을 勞動集約的 構造로 運營할 수 밖에 없었는데 勞動力 增加는 이를 따라와 주지 못하였다. 낮은 技術水準, 勞動力 不足의 條件下에서 重工業部門이 生産性은 勿論 絶對 生産量에 있어서도 低下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當然한 結果였다.

여기다가 國民들의 消費生活水準 向上에 대한 欲求是 점점 增大해 갔으며, 政治 指導者들은 이들의 要求를 充足시키기 위해, 經濟政策의 重點을 輕工業 및 農業, 流通構造의 發展에 옮기려 했으나 이미 大部分의 社會主義國家의 輕工業 및 農業部門은 回復하기 힘들 만큼 落後되어 있었다.

그리고 限定된 資源을 이미 크게 벌려놓은 重工業部門 및 軍需 産業部門에서 빼들려 輕工業部門으로 投資하는 데도 限界가 있었다. 특히 農業部門의 落後는 보다 더 深刻하고도 根本的인 問題인 「食糧 不足」을 낳게되어 社會主義 國家들은 傳統的 中央執權의 計劃經濟 體制에 대해 어떠한 式으로도 變化를 深刻하게 考慮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社會主義 國家들이 逢著한 또 다른 問題點은 傳統的 中央執權의 計劃經濟體制는 既存의 生産過程을 보다 더 높은 水準으로 바꾸는

것은 可能했으나 전혀 새로운 生産過程을 導入하는 데는 適切치 못했다는 點이다.

왜냐하면 計劃이란 것은 過去의 生産過程에서 나온 結果를 土臺로 作成되는 것인데 새로운 生産過程을 導入하는 境遇 計劃樹立에 必要한 資料를 구할 수 없어서 計劃과 實際 執行이 빗나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또한 企業 내지 末端組織들은 消費者의 選好나 市場의 움직임에 보다 더 迅速하고 正確한 情報을 얻을 수 있었지만 中央計劃當局은 그러한 情報에 鈍感했다. 따라서 中央當局이 下達한 計劃에 따라 生産된 製品이 販賣되지 못한 채 在庫로 남는 境遇가 허다했다.

그리고 經濟發展에 必要한 資源과 動力이 不足한 大部分의 社會主義國家들은 蘇聯으로 부터의 輸入에 依存했는데 1970年代以後 부터는 蘇聯以外的 다른 國家, 特히 西方으로 부터 더 많은 原料를 輸入해야 될 必要性이 높아지게 되었다.<sup>11)</sup>

따라서 社會主義國家들은 그 輸入에 必要한 外貨를 確保하기 爲해서 輸出을 늘여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變化는 그들이 投資決定 및 生産計劃에 있어서 優先적으로 輸出展望을 考慮하게 만드는 同時에, 西方市場에서도 競争力を 가질 수 있도록 輸出商品의 質을 改善하려는 努力을 하게 만들었다.

---

註 11) 世界 第1의 資源國家인 蘇聯의 境遇도 生産費 및 運搬費의 增大, 質 低下로 良質의 資源 不足現狀은 마찬가지였다.

## 나. 經濟改革 ( Economic Reform. )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傳統的 中央執權의 計劃經濟體制의 問題點은 東歐諸國의 境遇 50年代부터 나타나기 始作했으나 이에 대한 政治指導者들의 認識의 程度나 實際로 취한 經濟改革內容은 各樣各色이었는데 大略 다음과 같은 範疇로 나눌 수 있다.<sup>12)</sup>

첫째, 傳統的 中央執權의 計劃 「모델」을 건드리지 않고 「中央統制」를 強化함으로써 經濟的 效率을 높이려는 類型

둘째, 첫번째 類型과 마찬가지로 中央統制強化 代身에 「刺戟」( Incentive )體系를 改善함으로써 經濟的 效率을 높이려는 類型

셋째, 傳統的 中央執權의 計劃 「모델」自體를 修正하여 몇몇 重要한 中央權力機構를 解體하고 同時에 下部經濟單位에 實質的 權限을 委任함으로써 經濟的 效率을 높이려는 類型 等

세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中共等의 經濟改革과 1968年의 「체코」, 1970年代 後半의 「폴란드」의 經濟改革이 세번째 類型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기타 社會主義 國家들은 첫번째 또는 두번째 類型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첫번째 類型의 境遇, 組織改編, 企業에 對한 計劃指標數의 增大 등의 方法으로 推進되었으며, 最近에는 「컴퓨터」를 利用한 計劃作成의 自動化를 通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各 企業들을 聯合生産體나 「트러스트」 또는 大規模 企業으로 合併하여 生産單位의 數를 줄임으로써 計劃統制를 손쉽게 하면서, 이들 聯合生産體, 「트러

---

註 12) Ibid., pp.6-8.

스트」나 地域單位 經濟機構가 小規模 企業과 中央當局간의 中間役割을 맡도록 하고 中央의 一部 經濟部署를 改編, 縮小하여 計劃의 作成, 執行과 統制를 수월케 하는 效果를 期待하는 것이다. 이 類型이 세번째 類型과 다른 것은 推進方向이 세번째 類型은 實質的 權限의 下部委任을 통한 意思決定의 分權化인데 반해 첫번째 類型은 그러한 權限 委任없이 最終 意思決定權을 中央當局이 繼續 가지고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첫번째 類型의 境遇 問題解決보다는, 오히려 많은 經濟單位가 獨占的 位置에 서게 만들었거나, 既存問題를 地域單位 내지는 下部組織 單位로 細分化시키고 그만큼 그 數자를 增大시키는 새로운 問題點을 낳았다.

한편, 첫번째 類型과 더불어 社會主義國家들이 一般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經濟改革 手段은 刺戟體系의 變化이다.

社會經濟가 使用할 수 있는 刺戟體系는 「道德的 刺戟」(Moral Incentive)와 「物質的 刺戟」(Material Incentive)이 있다. 社會主義 國家들은 初期에 物質的 刺戟은 勞動者의 利己心과 分派主義를 가져오고 平等原則을 해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原則적으로 道德的 刺戟에 의한 「動機賦與」(Motivation)만을 認定했다. 그러나 道德的 刺戟보다는 物質的 刺戟이 勞動者들로 하여금 經濟活動에 自發的이 되도록 誘引하는데 있어서 強力한 힘을 發揮한다는 것이 證明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理念的인 問題點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大部分의 社會主義 國家들은 物質的 刺戟을 널리 使用하

게 되었다.

具體的으로 物質的 刺戟體系는 價格構造의 變化, 成果指標에 따른 賞與金 ( bonus )의 支給, 企業水準의 成果指標의 改善 等과 같은 方法으로 實施되었으나, 中央執權當局의 自意的인 價格體制가 歪曲되어 있는데다가 成果指標가 제대로 改善되지 못했으며,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 自體가 物質的 刺戟만으로는 제대로 效果를 거둘 수 없는 根本的인 問題가 있었기 때문에, 刺戟體系 以外의 다른 部門에 있어서도 經濟改革이 同時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社會主義 國家들이 안고있는 問題點들을 解決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社會主義國家들이 最近까지 첫번째 내지는 두번째 經濟改革에만 執著했던 것은 各國 特히 蘇聯의 政治指導者들이 그들의 經濟狀況이 傳統的 計劃經濟體制를 部分的으로 改善할 必要는 있으나 體制의 根本的인 改革은 必要하지 않다고 認識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認識다고 하더라도 經濟改革을 認推進하게됨에 따라 惹起될 것으로 豫想되는 여러가지 副作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다 包括的인 經濟改革에는 消極的이었던 것이다.

세번째 類型의 經濟改革 內容을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의 改革內容을 中心으로 整理해 보면<sup>13)</sup>

— 指令的, 物量基準의 中央計劃 役割 縮小

---

註13) P. T. Knight, Economic Reform in Socialist Countries, World Bank Paper No. 579,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1983, pp. 21-24.

- 國內外 經濟活動에 있어서 企業, 下部 經濟機構(地方行政機關, 委員會, 組合)의 自律的 役割 認定
- 金融體系나 價格體制에 立脚한 企業의 投資, 生産, 販賣計劃樹立
- 合理的 成果指標에 따른 賃金制度
- 私的 經濟活動의 生産的 機能 認定
- 對外貿易과 經濟協力の 積極的 役割 認定, 國際市場과 國內市場의 連繫 強化

等으로 要約될 수 있다. 中共의 境遇에도 經濟改革 內容은 위 內容과 거의 一致하고 있다. 그리고 最近 나머지 東歐諸國들도 세번째 類型의 經濟改革을 部分的으로 導入하여 實施하고 있다.

以上 살펴본 세가지 類型中에서 첫번째, 두번째 類型은 既存體制에 아무런 變化를 가져오지 않는 단편적인 經濟改革이므로, 改革手段으로서 下部政策이나 管理의 改善만을 꾀하는 것이다. 이 두 類型의 經濟改革도 漸次로 세번째 類型의 經濟改革으로 進行될 수 있는 初期段階로서 意味는 있으나 序頭에서 밝힌, 韓國이 北韓에 期待하는 經濟改革은 아니다. 北韓社會內에 合理的 思考의 增大를 가져올 수 있는 보다 實質的인 經濟改革은 세번째 類型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北韓의 經濟改革 可能性을 判斷할 때 使用하는 改革의 意味는 위에서 說明한 세번째 類型의 經濟改革 內容들이 어느 程度 同一한 「포장」(Package) 속에 넣어져 一貫性 있게 實施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미리 말해둔다.

### Ⅲ. 東歐諸國과 中共의 經濟改革 推進過程

#### 1. 概 觀

##### 가. 東歐諸國

「蘇聯式 中央執權 計劃經濟」는 蘇聯 및 그것을 收容한 國家들에서 産業化, 軍事力增強, 完全雇傭, 價格安定 等の 成果를 거두어 왔으나 그와 同時에 많은 弱點을 露出하였다. 蘇聯式 體制의 弱點은 東歐諸國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는데, 그 理由는 1917年의 蘇聯과는 달리 東歐諸國은 第二次 世界大戰 以前에 이미 産業化, 社會的 分化가 높은 水準에 達해 있었으며 民主的 制度 또한 西方 못지않게 發達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 結果로 高成長, 輸入對替 産業構造, 높은 投資率, 安全雇傭, 價格安定, 所得公平을 追求하는 蘇聯式 中央計劃經濟는 오히려 生産性 減少, 消費財의 慢性的 不足, 工產品 在庫의 累積, 낮은 農業生産 等 問題點들을 惹起시켰다.

「유고슬라비아」의 境遇는 1948年 「코민포름」(COMINFORM)에서 脫退한 後 1950년부터 이와 같은 問題點을 認識하고 蘇聯式 中央計劃 經濟體制에 對한 根本的인 變化를 始作하였다. 東歐의 CMEA 國家들은 1953年 스탈린 死亡後 1956年 「폴란드」, 「헝가리」의 政治的 改編이 있으면서 經濟學者들로 부터 經濟改革의 必要性이 主張되기 始作하였으며, 1950年代 後半 「알바니아」를 除外한 東歐 CMEA 國家들의 經濟가 「古典的 販賣者 市場」(Classi-

cal Seller's Market)에서 「限定된 需要者 市場」( Limited Buyer's Market )으로 轉換하기에 充分할 만큼 産業化되어 國民들의 消費增大 慾求가 높아지자 政治指導者들도 自身들의 政治的 基盤을 다지기 위해 經濟改革을 眞摯하게 考慮하게 되었다.

이때 改革論者들은 與件이 바뀌면 經濟管理體系도 바뀌어야 한다는 論理로 傳統的 體制를 直接 非難하지 않음으로써 黨을 건드리지 않고 經濟改革의 必要性을 主張하였다.

「본스타인」( Bornstein )은 그 當時 改革論者들의 主張을 다음과 같이 整理하고 있다.<sup>14)</sup>

- 下部 階層에 依한, 技術的·經濟的 바탕위에서 보다 많은 經濟決定
- 또한 그 決定은 合理的 價格과 成果指標에 依해서 이루어져야 함.
- 消費財, 生産財, 輸出品 모두 需要者の 要求에 맞게 生産되어야 함.
- 資源 動員 및 配分은 外延的 形態에서 集中的 形態로 바뀌어져야 함.
- 外國貿易은 技術·生産革新, 企業競爭의 訓練, 海外市場 利用한 規模의 經濟를 目標로 積極的으로 推進되어야 함.

그러나 1950年代 東歐諸國의 經濟改革은 政治指導者들이 經濟體

---

註14) M. Bornstein, "Economic Reform in East Europe", in,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S., East European Economies Post-Helsink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pp.105

제의 問題點을 제대로 認識하고 推進한 것이 아니라, 「스탈린」死後의 政治的 改編에 따라 權力基盤의 安定性 確保라는 政治的 動機로 始作된 것이기 때문에 實際로 實行에 옮겨진 內容이 貧弱했음은 勿論 誠意없이 推進되어, 「유고슬라비아」와 政治的인 理解가 있었던 「헝가리」를 除外하고는 다시 以前의 傳統的 計劃經濟 體制로 復歸하였다.

經濟改革의 두번째 파도는 1960年代 後半에 始作되었다. 이때에도 1965年 蘇聯에서 「후루시초프」( Khrushchev )沒落이라는 政治的 動機가 있었으나, 1950年代의 經濟改革보다는 傳統的 計劃經濟 體制的 限界가 더 많이 노정되어 政治指導者들이 經濟的으로도 經濟改革의 必要性을 認識할 수 있을 만큼 深刻한 狀態가 되어 있었다.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1960年代 初半까지 東歐諸國들은 蘇聯으로부터 原資材 및 「에너지」를 輸入하는 대신, 國際市場에서는 競爭力이 없는 工產品을 蘇聯에 輸出함으로써 어느정도 經濟成長을 持續시킬 수 있었다.<sup>15)</sup>

그러나 1960年代 中半以後 蘇聯은 資源生産 費用이나 「시베리아」로부터의 輸送費用이 비싸지고, 西方과의 交易量이 增加하게 되자, 東歐諸國들과의 交易에 인색해 졌으며, 여기에다가 「후루시초프」의 沒落以後 執權한 「코쉬킨」( Kosygin )이 1962年에 發表된 「리베르만」( Liberman ) 教授의 論文을 骨格으로 한 經濟改革을 實施하

---

註 15) 이때 「유고슬라비아」는 西方國家들과, 「알바니아」는 中共과 交易했다.

였다. 그러자 東歐諸國들은 資源輸入에 必要한 外貨確保를 爲해 世界市場에서 競爭力 있는 生産業體가 必要하다는 認識을 하게되는 한편 蘇聯의 經濟改革에 刺戟을 받아 다시 經濟改革을 어떠한 形態로든 實施하게끔 霧圍氣가 高潮되었다.

이때 「유고슬라비아」는 1965年 「社會主義 市場體制」( Socialist Market System)을 採擇함으로써 傳統的 中央計劃 經濟體制에 終止符를 찍는 劃期的 措置를 취하였으며, 「헝가리」는 1968年에 「新經濟機構」( NEM: New Economic Mechanism )을 採擇함으로써 東歐 CMEA國家中에서 가장 市場指向的인 經濟運用을 推進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東歐 CMEA國家들은 여전히 傳統的 計劃經濟體制下에서 統制方法이나 刺戟體系를 變化시키는 第1, 第2類型의 經濟改革을 實施하였다.

어쨌든 1960年代 後半의 經濟改革에 의한 結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大部分의 東歐國家들은 1970年代 初半까지 經濟成長에 相當한 成果를 거둘 수 있었다.<表1 參照>

그러나 1970年代 中半에 접어들면서는 初半부터 東歐諸國 앞에 보다 強力한 經濟改革 要因이 놓여 있었다.

첫째로, 經濟改革 推進內容이 「유고슬라비아」 및 「헝가리」를 除外하고는 큰 進展이 없었기 때문에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로서는 1970年代의 急變하는 經濟與件에 제대로 適應할 수가 없었다. 二次世界大戰後 큰 어려움이 없이 꾸준한 經濟成長을 維持해 오던 世界는 世界 도처에서 地域紛爭이 일어나고 資源民族主義가 고개를 들면서, 앞을 豫測할 수 없는 不確實性的 時代로 접어들었다. 그

<表 1>            社會總生產 및 1人當 國民所得成長率

(%)

區 分 國 名	社會總生產 GNP		1人當 國民所得 NI	
	1961-65	1966-70	1961-65	1966-70
불 가 리 아	8.8	9.3	5.9	8.0
헝 가 리	5.1	6.5	3.7	6.5
東 獨	5.0	6.2	3.7	5.1
루 마 니 아	9.7	9.0	8.3	6.5
蘇 聯	6.5	7.4	4.8	6.8
체코슬로바키아	3.7	6.8	1.1	6.8

資料：鄭暢泳， “東歐諸國의 經濟體制와 政策”， 東歐政治·經濟·社會論， pp.86~87에서 再引用

러나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는 이 거센 흐름에 對處할 수 있는 彈力性이 缺如되어 있었다.

둘째로, 蘇聯으로 부터의 原料 및 에너지 輸入은 여전히 鈍化내지는 停滯되면서, 두차례의 石油波動은 資源이 빈약한 東歐國家들에 對 큰 經濟的 負擔이 되었다.

셋째, 60年代 後半부터 農業生産이 停滯되기 始作하여 食糧 不足事態가 發生하였다.

네째, 西方諸國과 交易을 擴大하는 것도 「油價引上」의 德을 본 蘇聯을 除外하고는 技術進歩가 더더 國際競爭力이 弱한 東歐諸國으로

<表 2>

東歐 CMEA 國家들의 外債推移

( 10 億 美 \$ )

國 名	1970	1976	1980	1981	1982	1983
불 가 리 아	0.7	2.8	2.7	2.1	1.9	1.5
체코슬로바키아	0.6	1.4	3.6	3.5	3.4	3.0
東 獨	1.4	5.0	11.8	12.0	10.4	9.3
폴 란 드	1.1	11.3	22.8	24.0	25.0	25.0
루 마 니 아	1.6	2.5	9.2	9.8	9.4	8.0
헝 가 리	0.6	2.7	6.7	6.9	6.8	6.2
蘇 聯	1.0	10.0	9.5	12.4	10.6	7.9

資料 : H.H.Höhman, East European Economies 1981-1984, p.22

에서 再引用.

하여금 相當한 「外債」를 짊어지게 만들었다.<表 2 參照>

그 結果로 1970年代 初에는 相當히 樂觀的이었던 東歐經濟는 1970年代 後半에 접어들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直面하게 되었다.<sup>16)</sup> 따라서 1970年代 後半부터 1980年代 初半으로 접어들면서 東歐 CMEA 國家는 勿論 「유고슬라비아」도 새로운 經濟改革을 摸索하게 되었다. 特히 蘇聯은 自國內 經濟問題點를 解決하는 것 외에도

註 16) 蘇聯도 東歐諸國으로 부터 油價引上分만큼 더 많은 機械를 수입하게 되었는바, 이는 蘇聯經濟의 效率性面에서 많은 損失을 가져다 주었다.

社會主義 宗主國으로서 東歐諸國들이 經濟沈滯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提示해야 하는 責任이 있었고, 또한 CMEA國家들에 대한 經濟的 負擔을 덜기 위하여 眞摯하게 改革努力에 關心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1980年代에 들어와서도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를 除外한 東歐諸國의 經濟改革內容은 共產主義的 理念에 벗어나지 않는 範圍內에 限定되고 있으며, 經濟政策 代案의 選擇에 있어서 市場 指向的 經濟改革에 優先權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蘇聯을 비롯한 東歐 CMEA國家들의 많은 政治指導者들이, 1970年代後半 以後의 經濟危機가 體制的 弱點보다는 經濟官僚들의 서투른 經濟戰略과 經濟外的要素의 變化에 起因한 것으로 보거나 改革의 副作用을 우려하여, 政策構造와 經濟運用 過程의 改善에 보다 重點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3年 以後의 東歐諸國의 經濟樣相은 그들이 보다 積極的인 經濟改革을 考慮하게끔 만드는 것과 다른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다.

즉, 東歐 CMEA國家들 中에서 經濟改革이 가장 幅넓게 實施되고 있는 「헝가리」와 1979年度에 앞으로 「헝가리」의 NEM으로 進行될 수 있는 「新經濟手段」(New Economic Measures)를 採擇하고 있는 「루마니아」의 境遇, 沈滯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유고슬라비아」도 勞動生産性이 繼續 떨어지고(74年: 1.7%, 80年: -0.4%, 84年: -3.1%), 外債償還 負擔의 過重(84年末: 192億\$), 高率의 「인플레이」持續(84年: 52.4%), 높은 失業率(84年: 15%) 등이 發生하고 있는 反面에 오히려 다른 東歐

<表 3>

年平均 國民所得(NI)成長率

(%)

國 名	1976-80	1981	1982	1983	1984
불 가 리 아	6.1	5.0	4.2	3.0	4.0
체코슬로바키아	3.7	-0.1	-0.3	2.2	2.0-2.5
東 獨	4.1	4.8	2.5	4.4	4.5
폴 란 드	1.2	-12.0	-5.5	4.5	3.4-4.0
루 마 니 아	7.3	2.2	2.8	3.4	3.5-4.0
헝 가 리	3.2	2.5	2.3	0.5	1.5-2.0
蘇 聯	4.2	3.3	3.9	3.9	3.5-4.0

資料 : H.H.Höhman, East European Economies 1981-1984, p.6.

再引用

CMEA 國家들은 1983 年을 고비로 政治的으로 不安한 「폴란드」를 除外하고는 若干의 回復勢를 보이고 있어 經濟改革의 效果에 疑問이 提起되고 따라서 幅넓은 經濟 改革을 實施할 誘因이 적어졌다는 것이다.<表 3, 表 4 參照>

그럼에도 蘇聯을 비롯한 東歐諸國이 보다 積極的인 經濟改革을 推進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有力한 理由들이 있다.

첫째, 東歐諸國이 1983 年을 고비로 國民所得의 成長率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經濟的 效率은 여전히 낮은 水準에 있고, 農業部門의 不振과 生必需品 等 消費材 不足은 改善되지 않고 있으며, 外債負擔도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現水準의 經濟回復이 얼마나 持續될 수 있을런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表 4>

유고슬라비아의 主要經濟統計

年度	GNP (美億\$)	GNP 成長率(%)	1人當 GNP 成長率(%)	農 業 生産指數 1970=100	工 業 生産指數 1970=100	消費者 價格指數 1970=100
1970	687	-	-	100	100	100
1975	922	-	-	117	146	243
1979	1,185	7.0	6.1	132	195	429
1980	1,212	2.3	1.7	134	203	559
1981	1,229	1.4	0.7	136	211	787
1982	1,238	0.7	-	146	211	1,036
1983	1,223	-1.2	-1.9	144	213	1,459

資料 : U.S.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4.

둘째, 지금까지의 커다란 經濟改革의 과도가 그랬듯이 蘇聯에  
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진 「고르바초프」(Gorbachev)가 執  
權하게 되었다는 點이다. 就任後 바로 政府改編에 착수한 「고르  
바초프」가 가장 重點을 둔 部分이 經濟部署의 機能改革이었으며,  
또한 그는 1981年1月1日부터 「안드로포프」(Andropov)에 의해  
5個 工業部門에 實施된 「經濟實驗」을 擴大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는 한편 鑛工業生産과 住民生活水準 向上을 目標로 하는 幅넓은  
經濟改革의 構想을 여러차례 發表한 바 있다.<sup>17)</sup>

註 17) 1985.6.1-12, 「모스크바」(Moscow)에서 開催된 “科學技術發展에 關한 會  
議”에서의 報告文 및 1985.11.9日字 「프라우다」(Pravda)紙에 發表된  
“新長期經濟計劃草案”參照

따라서 이미 地方에서 農業部門의 經濟改革을 成功으로 이끈 經驗이 있는 「고르바초프」가, 아직은 어느 水準의 經濟改革을 實施할런지 明白하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方向으로 蘇聯의 經濟政策과 管理를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東歐 CMEA國家들은 勿論 大部分의 共產國家들이 影響을 받게 될 것으로 期待된다.

#### 나. 中 共

中共의 境遇에는 經濟改革의 背景이나 推進過程에 있어서 東歐諸國과는 다르다. 1950年代 初부터 中央計劃 經濟體制를 採擇한 中共은 1958-60年間の 「大躍進運動」과 1966-76年間の 「文化革命」期間에 經濟決定權을 「人民公社」, 企業, 地方行政機關에 下放하는 措置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東歐諸國의 境遇처럼 具體적이고 根本的인 變化를 試圖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目的도 經濟的 側面보다는 政治的 側面이 항상 더 強調되어 왔다.

따라서 中共에서 本格的인 經濟改革이 始作된 것은 鄧小平의 權力基盤 掌握을 確認해 준 1978年 12月の 「中央黨 第11期 3中全會」以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會議에서 中共黨 活動의 中心을 「4大 現代化」-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 - 라고 宣言한 中共은 1979年 6月, 「5期全人大 二次會議」에서 “調整, 改革, 整頓, 向上” 이라는 「八字方針」을 「슬로건」으로 하여 지금까지 調整과 改革을 통한 現代化의 實現에 腐心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東歐諸國의 경우처럼 産業化가 深化됨에 따라

<表 5>

中共의 經濟決定權의 回歸

1953-57年	行政管理 爲主의 中央執權的 經濟體制
1958-60年	經濟決定權의 하방 (「大躍進運動」)
1961-65年	“調整, 強化, 充實, 向上”의 「8字方針」에 따른 集中
1966-76年	經濟決定權의 下方 (文化革命)
1977-79年	經濟決定權의 中央集中
1979-81年	“調整, 改革, 整頓, 向上”의 「8字方針」에 따른 集中과 分散의 調和
1982-現在	經濟決定權의 하방 擴大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的 限界가 드러나 經濟改革을 始作하게 된 것이 아니고, 中共은 낮은 所得水準과 後進的 產業構造를 어떻게든 脫皮하기 爲해서 物質的 「이니셔티브」와 市場機能의 導入, 對外開放을 서둘러 推進하게 된 것이다.

中共이 70年代 後半 鄧小平 執權以後 經濟改革에 눈을 돌리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背景이 指摘되고 있다.<sup>18)</sup>

즉, 中共의 政治指導層이 「마르크스」主義의 經濟理論에 立脚한 急速한 社會主義 國家建設에 지나치게 執著한 나머지 中共이 가진

註 18) K.C. Yeh, "Macroeconomic Changes in the Chinese Economy during the Readjustment", The China Quarterly, No.100, Dec. 1984, pp.691-696.

特有한 現實, 즉 農民이 全人口의 80%를 占하는 後進的 産業構造, 낮은 教育水準, 多民族 統合國家로서 各 地域이 가지는 諸般 固有性간의 葛藤 등을 充分히 考慮치 않은 채 國家計劃에 依한 劃一性, 높은 成長, 重工業, 生産關係等만을 重視해 왔던데에 따른 經濟運用의 歪曲이다.

이러한 急進的 「左翼」路線이 빚은 誤謬는 輕工業 輕視, 資本蓄積과 消費의 不均衡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國民生活 水準의 向上을 沮害하였으며, 基本建設에 대한 莫大한 投資는 그에 相應한 技術水準의 向上없이 이루어져서 實際의 生産力 增大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極度の 官僚主義的 病弊때문에 地域間·企業間 經濟的 連繫가 破壞되었다.

鄧小平은 위와 같은 問題點을 認識하고 「헝가리」, 「유고슬라비아」等 東歐諸國의 經驗을 參考하여, 먼저 農業 및 工業部門에 있어서, 市場體制 및 企業의 自營的 役割을 導入함으로써 生産力 增大를 實現, 國民의 基本欲求 充足과 參與意識을 提高한 後, 이를 土臺로 보다 強力한 社會主義 國家를 建設하려는 實用路線을 採擇하였던 것이다.

中共의 經濟改革 推進內容을 部門別로 簡略하게 살펴보면 農業部門은 1978年 12月 「中共黨 第11期 3中全會」에서 農業發展問題가 討議된 後, 全農家の 90%에 契約을 基盤으로 하는 「生産責任制」가 普及되었으며, 農業生産量은 勿論 生産性 面에 있어서도 刮目할 만한 成果를 거두었다.<表 6, 表 7 參照>

<表 6>

中共의 產出, 勞動, 生産性 年平均成長率

(%)

	1957-78			1978-82		
	產 出	勞 動	生産性	產 出	勞 動	生産性
農 業	2.2	2.0	0.2	6.4	1.6	4.8
工業・建設	9.0	6.2	2.8	7.2	4.2	3.0
서 어 비 스	3.5	2.3	1.2	1.6	9.2	-7.6

資料 : The China Quarterly, No. 100, Dec. 1984, p.706 에서 再引用

<表 7>

中共의 主要 經濟統計

年 度	GNP (美億\$)	GNP 成長率(%)	1 人 當 GNP 成長率(%)	農 業 生産指數 1970 = 100	工 業 生産指數 1970=100	消 費 者 價格指數 1970=100
1970	161.7	-	-	100	100	100
1975	212.2	-	-	121	159	101
1979	269.3	7.0	5.8	150	226	107
1980	283.3	5.2	4.0	154	246	115
1981	291.9	3.0	1.6	163	256	118
1982	313.5	7.4	5.8	181	276	120
1983	341.7	9.0	7.3	198	305	122

資料 : U. 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4.

工業部門의 改革은 1979年 7月 「國務院」이 “國營工業企業의 經營管理 自主權 擴大에 關한 規程”을 可決한 以來, 自主的 實驗

企業을 四川省을 中心으로 實施하다가 相當한 成果를 거두자, 1984年 10月에는 보다 市場指向的이고 價值法則에 立脚한 都市經濟部門의 改革을 內容으로 하는 “經濟體制 改革에 關한 決定”을 發表하기에 이르렀다.

中共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은 內部經濟改革과 同時에 積極的인 對外開放政策을 推進하고 있다는 點이다. 즉 中共은 「經濟特區」와 「經濟開放都市」의 設置를 通해 外資導入을 積極推進하는 한편, 輸出入額 또한 經濟改革 以前과는 比較가 안될 程度로 增大되었다. <表 8, 表 9 參照>

<表 8>

中共의 對外部門 現況

( 億美 \$ )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輸 出	57.9	97.5	136.6	182.7	208.9	218.2	221.9	244.4
輸 入	72.1	108.9	156.8	195.5	194.8	174.8	185.3	255.3
總 貿 易 高	148.0	206.4	293.4	378.2	403.7	393.0	407.2	499.7
外 換 保 有 高	23.5	15.6	21.5	22.6	47.7	111.3	143.4	144.2

資料 : •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1984.

• EIU, Quarterly Economic Review-China, North Korea, , No.2, 1985.

• 中共 對外貿易部 發表 ( 1985.1.22 )

<表 9>

中共의 外資導入現況 및 主要國別, 機關別  
對中共 投資現況(1979-83年)

(美 百 萬 \$)

	外資導入 總計	日 本	美 國	홍 콩	I M F	World Bank	銀 行 款 借 款
總計	1,462	411	106	441	93	97	756
對外借款	1,194	316	20	9	93	97	756
直接投資	268	95	86	432	-	-	-

資料：中國 對外經濟貿易年鑑，1984.

中共의 經濟改革은 東歐 CMEA諸國이나 「유고슬라비아」에 비하면 짧은 期間 동안이었지만 그 實施內容에 있어서는 오히려 앞서 가고 있는 部分도 많다.

그러나 中共이 經濟改革을 통해 刮目할만한 成果를 거두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아직 經濟改革이 定着되지 않은 狀態에서 精神的汚染, 「인플레이」, 外換保有高 減少등 많은 副作用이 同時에 發生하자 最近 改革反對派는 勿論 改革推進派內에도 너무 빠른 速度의 經濟改革에 대한 批判이 일고 있다.<sup>19)</sup>

그러나 鄧小平을 中心으로 한 中共의 實用主義 改革推進 勢力은 위와같은 副作用의 程度가 심하긴 해도 改革을 始作하는 段階에서 豫見된 것들임을 強調하고 있고, 中共의 現代化 目標達成을 위해서는 經濟改革이 必要하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기 때문에 短期的으로

註 19) 자세한 內容은 “China’s Changing Imag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 21, 1985, pp.67-69 參照.

는 經濟改革이 다소 주춤거리더라도 長期的으로 볼때는 現在의 經濟改革趨勢를 繼續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sup>20)</sup>

## 2. 改革推進의 障礙要因

社會主義 國家들이 經濟改革을 推進하는 데는 앞에서 敍述한 바와같은 經濟改革을 實施하게 만드는 壓力要因과 同時에 改革에 對한 「障礙要因」이 強하게 發生하였으며, 各國의 經濟改革의 具體的 內容은 두 相反된 힘의 葛藤의 產物이었다.

그런데 그 改革推進의 障礙要因은 社會主義 國家들의 內部에서는 勿論 外部에서도 發生하였다. 外部로 부터의 障礙要因은 大部分 蘇聯에 의한 東歐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改革에 대한 不滿의 表示였는데, 蘇聯은 東歐諸國들이 內部的 經濟改革과 對外經濟開放政策을 推進하게 될 境遇 東歐諸國에 대한 蘇聯의 影響力이 減少될 우려가 있었고, 經濟改革의 推進過程에 社會的, 政治的 體制 改革要求가 함께 發生하여 蘇聯이 支援하는 執權 共產黨의 位置가 흔들리는 것을 願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經濟改革에 對한 外部로부터의 反撥에 있어서는 蘇聯이 1968年 「체코」의 “「프라하」의 봄”에 대한 裁制措置로써 軍事的 侵略을 恣行한 것을 代表的으로 들 수 있는데, 이 事件을 통해서 우리는 社會主義 國家에 있어서 經濟的 改革과 政治的 改革의 關係 및 限界

---

註 20) “An Interview with Deng Ziaoping”, TIME, Nov. 4, 1985, pp.26-27.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1980年 「폴란드」의 經驗에서 明白해졌듯이 蘇聯은 체코에 資本主義가 浸透하는 것을 두려워 했다가 보다는, 企業이 國家의 所有가 아닌 國民의 所有가 되고 眞情한 勞動者들에 依한 運動이 成功을 거두게 되는 것을 두려워 했던 것이다.<sup>21)</sup> 그리고 經濟改革은 그 性格上 「政治的 自由」 또한 要求하게 되나, 社會主義國家에서 두가지가 同時에 推進되는 것은 蘇聯 共產黨에게 容納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反對로 經濟改革이 政治·社會體制로 擴散을 自制할 때 그 推進에 障礙要因이 적어진다는 事實이다.

그렇다면 東歐 CMEA 國家들 中에서 「헝가리」는 어떻게 蘇聯의 결에서 20年동안이나 經濟改革을 相當水準까지 推進할 수 있었는가. 그 理由로서는 여러가지가 指摘되고 있지만 대개 다음 5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sup>22)</sup>

첫째, 「헝가리」의 NEM은 체코의 “「프라하」의 봄” 바로 直前に 施作됐으며, “「프라하」의 봄”의 悲劇的 終末을 지켜본 「헝가리」는 그들의 經濟改革의 限界를 깨닫고 無理를 하지 않는 漸進的인 改革을 推進하였다.

둘째, 外交政策은 勿論 對外交易에 있어서도 蘇聯에 繼續 치우쳐 왔으며, 恒常 蘇聯이 「헝가리」에 加하는 影響力을 순순히 받아 들였다.

---

註 21) A. Zwass, The Economies of Eastern Europe, London : Macmillan, 1984, pp. 51-55.

22) H. H. Höhmann, “East European Economies 1981-1984: Growth, Reform and Foreign Trade Problems”, Berichte des Bundes Instituts, July 1985, pp. 12-13.

세째, 國內的으로도 黨에 影響을 주지 않는 一定한 範圍內에서 推進되도록 嚴格한 統制를 加하였다.

네째, 地政學的으로 「헝가리」의 工業地帶는 「유고슬라비아」의 工業地帶와 가까이 있어 兩國間에는 活潑한 交易이 이루어졌고, 그 交易을 通해서 「유고슬라비아」의 經濟改革 經驗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다섯째, 蘇聯은 앞에서도 敍述한 바와같이 經濟改革에 無關心해온 것이 아니었다.

蘇聯은 必要하다면 언제라도 「헝가리」를 그들의 意思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改革「모델」로서 獨特한 「헝가리」의 經濟改革을 하나의 「經濟實驗」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現在 「헝가리」 또한 內部·外部의 改革批判論者들의 거센 反撥을 막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1970年代 한때 1968年度 改革以前 體制로 部分的으로 復歸했던 事實이 이를 說明해 주고 있다.<sup>23)</sup>

한편 經濟改革에 대한 障礙要因은 內部的으로는 다음과 같이 發生해 왔다.

첫째, 經濟改革內容과 社會主義 理念間의 相馳이다. 一部 政治指導者들과 保守的 共產主義 理論家들은 經濟運用을 市場, 資本, 利潤, 物質的 刺戟, 對外貿易 等に 依存하는 것이 社會主義에 理念的으로 背馳된다는 根本的인 問題를 提起하면서 經濟改革을 反對해 왔다.

---

註 23) 後記, pp.51-52.

둘째, 現實的으로 經濟改革은 經濟全般에 대한 黨의 指導力을 弱化시켜 黨의 位置를 不安하게 만들고, 經濟的 自由化는 社會, 政治的 自由化를 要求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黨과 政府의 指導層에서 恒常 提起되어 왔다.

세째는 所得不平等, 物價上昇, 失業發生 등에 대한 우려이다.

이러한 副作用은 社會主義 目標와 相反되는 것이면서 무엇보다도 經濟改革에 대한 國民들의 支持를 얻는데 큰 障礙가 되고 있다.

社會主義 經濟改革을 가장 廣範圍하게 實施하고 있는 「헝가리」, 中共, 「유고슬라비아」 등 세 나라에서는 이미 위와 같은 經濟的 副作用이 發生하고 있으며, 이에 便乘하여 詐欺, 專賣, 投機 등 精神的 腐敗까지 發生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改革論者들을 唐慌하게 만들고 있다. 앞의 두가지 改革推進에 대한 障礙要因에 比效하여 이와같은 經濟的 副作用은 社會主義 國家들로서는 經驗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 解決이 어려운 問題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經濟改革에 對한 障礙要因으로서 經濟改革에 反對하는 「利益集團」( Interest Group)의 反撥을 들 수 있다.

먼저 經濟改革에 反撥하는 利益集團으로서 黨과 政府의 官僚階層을 들 수 있다. 東歐諸國의 境遇 黨·政 各 部門에 박혀 있는 「노멘클라투라」( Nomenklatura )라고 불리는 新層特權官僚階層은 黨과 政府의 經濟에 對한 強力한 힘을 利用해서 各種 不正腐敗의 溫床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經濟改革에 의해 經濟決定權이 下放됨에 따라 그들의 既得權을 喪失하게 될 것을 우려, 經濟改革 實施에 強力한 反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中共에

서도 黨指導層에 의해 여러차례 指摘되어 온 事實이다.

두번째로는 管理技術보다 黨性優先의 原則에 의해 任用된 各 企業의 管理者, 支配人들의 反撥이다. 「유고슬라비아」의 境遇에는 「自主管理制度」( Worker's Self-management )에 의해 企業의 管理者인 企業長의 選出을 勞働者評議會, 「콤뮌」, 勞働組合이 合同으로 應募者 가운데서 投票로 뽑고 있는데, 이 境遇 選拔에 가장 重要한 것은 管理技術이지 黨性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하나 改革을 反對하는 利益集團은 勞働者와 知識人 들이다. 大部分의 經濟改革은 生産性を 向上시키기 爲해서 物質的 刺戟을 強化하는 대신 政府豫算에 의한 各種 補助金を 削減하는 措置를 취하고 있는데, 그 結果로 勞働者들은 過去 대충 目標만 達成하면 되던 怠慢한 作業態度를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成果에 따른 報酬制度和 市場機能에 따른 價格體系는 그들의 實質 所得에 影響을 미치게 되어 所得隔差가 深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勞働者들은 經濟改革에 따른 安定性이 確認되어야만 改革 推進에 同意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境遇에는 改革에 反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物質的 刺戟에 의한 經濟改革推進은 知識人들에게도 심한 反撥을 살 要因이 많다. 그 까닭은 經濟改革을 推進한 結果, 技術者, 勞働者들은 改革以前보다 훨씬 높은 所得을 올릴 수 있고, 大學까지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大學出身보다 더 높은 物質的인 豊饒를 누릴 수 있게되는 經濟第一主義에

對해 知識人들이 疎外感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sup>24)</sup>

### 3. 各國別 經濟改革 推進內容

지금까지 傳統的 中央統制 計劃經濟體제의 性格과 長短點이 무엇이며, 그 體制下에서 社會主義 國家들이 왜 그리고 어떠한 經濟的 어려움에 逢著하게 되었고 그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 各國은 어떠한 形態의 解決方案을 摸索해왔는를 中心으로 社會主義國家들이 經濟改革을 推進하게 되는 여러가지 要素들과 이를 沮止하려는 障礙要因들에 대해서 簡略히 살펴보았다.

前述한 것처럼 社會主義國家들이 經濟改革을 推進하게 되는 背景과 推進類型은 그 나라의 政治的, 社會的 狀況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유고슬라비아」와 東歐 CMEA諸國中에서는 「헝가리」가 20年 가까이 가장 幅넓은 經濟改革을 推進하여 왔으며, 비록 失敗로 끝나긴 했으나 1960年代의 「체코」와 1980年度의 「폴란드」의 經濟改革은 經濟的 自由와 더불어 政治的 自由까지 함께 推進하려 했던 가장 急進的인 것이었다.

그리고 蘇聯은 1965年 「코쉬킨-리베르만 經濟改革」 以來

---

註24) 中共의 境遇 이러한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택시」 運轉技士의 月所得이 大學教授의 月給보다 훨씬 많게 되었다.

자세한 內容은 東亞日報, 1985.11.29日字 “口號는 反日, 內容은 反鄧” 參照.

現在까지 여러차례의 經濟改革을 試圖하여 왔으나 모두 失敗하였으며 다른 東歐諸國은 이와 비슷한 實情이었다.

한편 1978年以後 急速한 經濟改革을 推進하고 있는 中共은 그 經濟改革 內容自體도 그렇지만 莫大한 人口와 領土를 가진 潛在的 市場으로서 西方의 關心을 集中시킨 가운데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 못지않은 幅넓은 經濟改革을 實施해 오고 있다.

따라서 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形態로든 各國이 經濟改革을 推進하는 內容을 전부 整理해 보는것이 보다 더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改革을 理解하고 나아가서는 本稿가 目的하고 있는 北韓의 經濟改革을 展望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여기서는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改革中 代表的인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및 中共의 經濟改革 推進內容만 簡略히 整理해 보았다.

#### 가.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는 1950年代初에 다른 東歐諸國보다 가장 먼저 經濟改革에 着手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時期에 「헝가리」, 「체코」 東獨 등 다른 東歐諸國들도 經濟改革에 着手하였지만 實質的인 意味의 中央統制 計劃經濟體제의 緩和, 즉 指令的 年間計劃의 廢止, 價格機能의 部分的 復活, 企業의 勞動者에 의한 自律的 經營管理制 등을 導入한 것은 「유고슬라비아」뿐이었다.

이처럼 「유고슬라비아」가 東歐諸國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幅넓은 經濟改革을 推進하게 된 背景은 무엇보다도 1948年 「유고슬라비아」가 「코민포름」에서 脫退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事實 「유고슬라비아」는 二次世界大戰 直後에는 다른 東歐國家보다도 오히려 蘇聯式 計劃經濟體制를 따랐었으나 「코민포름」에서 脫退하면서 人民主義, 平等主義 等 社會主義 革命理想의 實現과 蘇聯式 計劃經濟體制와는 一致하지 않는다는 點에 대해서 많은 行政官僚層은 葛藤을 느끼게 되었으며,<sup>25)</sup> 同時에 人種과 言語가 다른 「유고슬라비아」特有의 6個 聯邦의 自律權 要求 때문에,<sup>26)</sup> 「유고슬라비아」의 政治指導者들은 이같은 葛藤을 解消하고 國民들의 支持를 獲得하기 爲해 經濟改革을 實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立場에서 「유고슬라비아」는 于先 社會的 所有概念을 生産手段의 管理 및 生産物 處分에 있어서 勞動者의 自律權을 認定하는 「勞動者 自營體制」를 導入함으로써 突破口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같은 背景下에서 「유고슬라비아」는 1949年末 215個 標本企業에서 「勞動者評議會」(Worker's Councils)를 構成하면서 勞動者 自營에 의한 「市場社會主義」를 始作하였으며, 1950年 7月에는 國會에서 正式으로 「勞動者 自營法案」(The Worker's Self-Management Act)을 採擇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유고슬라비아」의 經濟改革은 지금까지 大略 4段階로 나누어 進行됐다고 볼 수 있다.<sup>27)</sup>

---

註25). Knight, Op.cit. p.85.

26) "The Marxist World: Lure of Capitalism", U.S. News & World Report, Feb.4, 1985, p.41.

27). Knight, Op.cit. p.88.

- 1950-53年 :傳統的 中央統制 計劃經濟體制로 부터 離脫
- 1954-64年 :「市場 社會主義」의 精巧化, 堅固化
- 1965 - 74年 :市場機能을 最大限 導入한 經濟體制
- 1975年以後 :市場機能의 一部 制限, 「自主經營計劃」( Self-management Planning)의 새로운 形態로<sup>28)</sup> 發展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는 1953年, 1963年, 1974年의 憲法改正을 통해 經濟改革으로 惹起된 社會, 政治, 經濟的 變化를 定型화 해 왔다.

以下 「유고슬라비아」의 經濟改革을 生産手段의 所有, 意思決定, 價格決定, 動機賦與, 競爭部門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sup>29)</sup>

#### (1)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

1952年 모든 國營企業의 經營權은 「勞動者評議會」로 넘어갔으며 1953년에는 憲法에 이 事項을 政治, 經濟體制的 基本權으로 採擇하였다. 이는 바로 生産手段의 所有權을 國家가 勞動者에게 「信託」하는 것으로, 그 後 勞動者評議會와 聯邦政府의 各 經濟部署 間에 生産手段의 管理와 運營에 對한 權利와 義務의 範圍는 繼續 變化해 왔지만,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라는 基本 原則은 繼續 維持되었다.<sup>30)</sup>

註 28) 이것은 執權화와 分權化의 否定的 側面을 克服하는 것을 目標로하는 것임.

29) 보다 자세한 內容은 Ibid. 또는 Zwass, Op.cit. 그리고 S.R.Sacks, Self-management and Efficiency: Large Corporation in Yugoslavi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3.을 參考.

30) 1981年 總勞動力의 61%가 社會的 所有部門에 雇傭되어 있었으며 國內生産 (GDP)의 85%가 이 部門에서 生産되었다. Knight, Op.cit. p.87.

한편 5人 以下를 雇傭하는 小規模 企業의 境遇 1970年代부터 完全 個人所有가 許容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個人企業은 協同企業과 生産關係를 갖고 資材購入과 供給을 하고 있다.<sup>31)</sup>

그러나 農業部門에 있어서는 私的 所有가 支配的인 形態로 되었다. 즉, 農業部門에서는 10ha 以內의 土地를 個人이 所有, 耕作할 수 있는 制度가 1953年以後 줄곧 維持되어 왔다.<sup>32)</sup>

## (2) 意思決定의 分權化 : 社會的 合意

「유고슬라비아」의 經濟改革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이 意思決定의 分權化 過程을 제대로 理解할 必要가 있다. 한마디로 「유고슬라비아」의 經濟改革의 基本은 可能的 限 經濟 및 社會問題에 對한 國家의 加入을 排除하고 企業의 自主的 經營權을 擴大하는 것이었다.

1950年代에 勞働者評議會에 依한 企業의 自律的 經營을 始作으로 1965年의 經濟改革은 i) 國家計劃의 性格을 強制的 計劃에서 指向 計劃으로 緩和하고 ii) 國家次元의 財政機構의 役割을 縮小시키는 대신, 商業銀行의 投資에 對한 決定權을 強化했으며 iii) 經濟的 意思決定에 價格體系와 市場機能의 役割을 增大시키는 方向으로 意思決定의 分權化를 推進해 갔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의 多樣한 人種, 言語에 따른 地域主義가 投資決定에 介入되고 相當數 企業들이 勞働者 自營權을 濫用한 結果, 自主經營의 社會的, 倫理的 目標은 弱화된 反面 投資效率性 減

---

註 31) 이 部門은 全體 雇傭의 4%를 차지. Loc. cit.

32) 1980年 農業의 私的所有部門은 農業部門雇傭의 92%, 農業生産의 71%를 차지하고 있었다. Loc. cit.

少, 「인플레이」, 對外貿易赤字等の 問題點이 發生되었다.

그러자 1974 年の 憲法改正에서는 國家的 次元의 目標과 意思決定 分權化에 의한 自主經營과의 調和를 꾀한 새로운 制度를 導入하였는데, 이는 投資計劃 樹立에 있어 國家의 主要한 中長期 計劃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 必要한 境遇 國家가 一時的으로 介入을 하는 대신 企業水準의 分權化는 擴大해 나가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 結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最近 小規模企業 보다는 大規模企業 내지는 聯合企業體가 增加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는 反面, 大規模企業이나 聯合企業體 內에 거의 完全한 獨自 經營權을 가진 「分組」(divisions)가 增加하고 있어, 實質的인 意思決定의 分權化는 더욱 擴大된 셈이 되었다.<sup>33)</sup>

한편, 「유고슬라비아」의 意思決定 分權化의 特徵으로서는 各 企業內의 勞働者評議會, 運營委員會, 管理組織(企業長)으로 構成되는 「聯合勞動組織」(BOAL: Basic Organization of Associated Labor)과 「社會契約」(Social Compacts), 「自主管理協定」(Self-Management Agreements) 등의 制度가 있는데 이는 모두 意思決定의 分權化는 擴大시켜 나가면서 微視的 意思決定과 國家的 次元의 協同的 目標을 調和시켜 나가려는 努力에서 考案된 것들이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의 意思決定의 分權化에 있어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유고슬라비아」가 意思決定에 있어서 적절한 價格이나 利率에 의한 決定보다는 計劃當局, 銀行, 企業, 黨 等 많은 關係者가 「合意」하는 方法을 주로 써 왔으며, 그 結果로 現實的으로 意思決定에 많은 浪費가 發生해 왔다는 事實이다.

---

註 33) 이 點에 對해서는 特히 .Sacks, Op. cit., pp.143-145 參照.

### (3) 制限的 價格決定 自由化

價格決定에 있어서도 「유고슬라비아」는 價格이 資源配分の 合理性을 保障할 수 있도록 運營하려 했으나, 集團間, 地域間 平等과 같은 體制的 基本目標와의 葛藤때문에 實際的으로는 많은 資源配分決定이 市場機能 밖에서 이루어졌다.<sup>34)</sup>

「유고슬라비아」는 價格決定 方法으로 다른 4 가지 形態를 취해 왔다.

- 「利益共同體」(The Community of Interest)<sup>35)</sup>에 의한 決定: 社會奉仕(Social Service), 電力, 上水道, 鐵道, 道路, 建設, 外換分配 等
- 「自主管理協定」에 의한 決定: 企業間 또는 BOAL間 去來의 경우
- 行政機關에 의한 決定: 基本 戰略的 商品과 서어비스
- 完全自由價格: 農村 및 手工業의 個人 生産部門

生産要素價格 決定에 있어서 「유고슬라비아」는 매우 複雜하면서도 保守的인데 그러한 傾向은 勞動價格決定의 경우 특히 심하다.

즉 「勞動者 自營制度」下에서 勞動者들은 企業의 成果에 따른 分配를 要求할 수 있으나, 慣習的으로 勞動이 商品으로 市場決定賃金에 의해 去來되는 것을 認定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勞動者들간 약간의 所得格差는 發生하고는 있지만 이와같은 慣習的 要素가 賃

---

註 34) 價格自由化는 工產品의 57%, 消費財의 76%가 自由化되었던. 1971年이 가장 정점에 달한 때였다. Kinght, Op. Cit., p.95.

35) 聯邦, 地方, 「콤문」 등 水準으로 組織

金決定에 主要한 役割을 하고 있어 全般的으로 賃金構造에는 큰 變動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資本財價格인 利子率 決定도 傳統的인 「마르크시즘」(Marxism)의 「剩餘價値說」에 立脚하고 있어, 銀行은 그 수요나 機能이 擴大되고 있지만, 그 地位와 性格은 企業을 위해 奉仕하는 組織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利子率 또한 상당히 낮은 水準에 머물러 왔다.

한편 換率은 1961年 複數換率制度를 廢止한 以來 自由化를 擴大하면서 1973年 중반에는 固定換率制까지 廢止하였으나, 輸出促進과 收支均衡을 위해 外換使用에 있어서는 利益共同體 水準에서 必要한 경우 介入을 하고 있다.

#### (4) 動機賦與：制度和 現實의 乖離

1950年代 以來 「유고슬라비아」의 賃金制度는 根本的인 面에 있어서 거의 變하지 않았다. 즉 各 部門 勤勞者의 賃金은 教育程度, 經驗, 責任, 作業條件 等 客觀的인 要素에 따라 BOAL에 의해 作成되어 「勞動者評議會」에 의해 承認된 「自主管理協定」에 의해서 決定되어 왔으나 前述한 바와같이 慣習的 要素가 賃金決定에 계속 影響을 미쳐왔다. 그래서 「보즈니아」(Bosnia)地方을 除外하고는 賃金上限線이 廢止되고, 企業의 收益성과 各 個人의 成果에 따른 成果給 制度에 따라 賃金を 支給한다지만, 대체로 같은 BOAL內의 경우 勞動의 種類에 따라 비슷한 水準이 維持되고 있다.

失業은 存在하고 있으나<sup>36)</sup> 實際로 企業이 勤勞者들을 解雇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法에 의해 損失이 累積된 BOAL은 破産節次를 執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제대로 實施되지 못하고 있다.<sup>37)</sup>

(5) 「競爭」보다는 「公謀」

各 部門에 있어서 競爭은 다른 東歐國家보다는 활발한 편이지만 1975年 새로운 「自主管理計劃」을 採擇한 後 競爭 역시 國家的 次元의 利益을 위해 많이 制限하고 있다.

즉 「自主管理協定」이나 「社會契約」等, 「競爭」이라기 보다는 各 當事者間의 「公謀」에 의해 經濟活動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以上 「유고슬라비아」의 經濟改革 推進內容을 各 部門別로 살펴 보았는데, 위와 같은 經濟改革을 推進한 結果, 꾸준한 經濟成長을 이룩해 왔으며, 各 地域 내지는 個人 勤勞者의 要求를 어느정도 만족시켜 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유고슬라비아」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데 그 理由는 첫째, 「유고슬라비아」가 아직도 완전히 分權化되지 않아서 稀少性 原則에 立脚한 올바른 價格, 企業의 投資行爲에 대한 올바른 基準, 巨視的 統制 등이 缺如되어 있기 때문이며,

---

註 36) 1981年 失業率은 5.1%였으며, 여기에다가 勞動力의 8.1%는 西方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었다. .Knight, Op. cit. p.101.

37) 1982年의 경우 損失이 累積된 260여개 BOAL중에서 14개 BOAL만 破算節次 執行. Ibid. pp.103-104.

둘째, 1974年의 새로운 「自主管理計劃」은 計劃內容이 너무 複雜해서 意圖와는 달리 오히려 經濟狀況을 올바르게 分析하는데 障礙가 되고 있고,

셋째, 두차례의 石油破動에 의한 國際經濟環境의 惡化에 따른 外生的 要因이 함께 作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1980年 「티토」(Tito)死亡後 中央의 權力 空白狀態속에서 「유고슬라비아」經濟는 6個聯邦의 地域主義가 더욱 심해지고, 各 工場 企業所들은 自營方式에 너무나 철저했던 나머지 政府의 統制는 물론 市場經濟 原理로부터도 自由로운 狀態속에서 時代에 뒤떨어진 商品을 계속 生産해 내거나 價格을 마음대로 定하는 등 심각한 經濟混難이 加重되었다.<sup>38)</sup>

그러나 最近 「티토」의 後繼者들은 이와같은 經濟難을 打開하기 위해, 西方投資의 限界 上限을 높여서 資本과 技術獲得의 門戶를 넓히고, 形式的이었던 破産法을 과감하게 實踐하며, 個人所有 企業所를 擴大하는 등 보다 더 積極的인 措置들을 취하고 있어, 아직도 相當部門 남아있는 黨內 理論家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分權化되는 方向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나. 헝가리

1968年 NEM採擇以來 「헝가리」는 東歐 CMEA諸國中에서 經濟改革의 先鋒將이 되었다. 1960-81年間 「헝가리」의 國內總生産은

---

註 38) U. S. News & World Report, Feb. 4, 1985, p.41.

年平均 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 결과로 「헝가리」는 「소비에트 블록」(Soviet bloc) 중에서는 가장 소비생활 수준이 높아졌으며, 「헝가리」의 都市에 가면 얼핏 西歐와 다를바가 없을 정도로 發展했다.

「헝가리」農産物 生産量の 40% 정도가 私有地에서 경작되어 나오며, 國營企業所中 經營實績이 나쁜 것은 民間人들이 經營을 떠맡아 運營하고 있고, 많은 企業들이 投資資金 調達을 위해 株式을 公謀하고 있다.

그리고 商品의 約 折半以上이 需要와 供給法則에 의해 價格이 決定되고 있으며, 1985年初에는 價格을 決定하고, 勞動者를 雇傭管理하는 모든 事項을 工場管理者가 獨立的으로 決定할 수 있는 改革措置가 취해지기도 했다.

對外經濟協力 및 交流部門에 있어서도 금년들어 「헝가리」政府는 4個 公營 對外貿易機構가 商品生産, 資金融通, 工場設立등에 직접 參與할 수 있도록 一般會社로 轉換하는 것을 許容하는 한편 지금까지 外國企業의 合作投資의 경우 株式持分の 49%까지만 取得할 수 있게 했던 合資規制法을 緩和하는 措置를 斷行했다.<sup>39)</sup>

이와같은 「헝가리」의 經濟改革은 1956年 11月, 나지(Nagy)政權이 退進하고 「카다르」(Kadar)政府가 들어서면서 農業部門의 改革에서부터 始作되었으며 이미 1956년에 1968年 實行된 NEM과 類似한 改革案이 마련되었었다.

---

註 39) 日本經濟新聞, 1985.6.19.

그러나 그 당시에 蘇聯은 「헝가리」의 急速한 經濟改革을 반대했으며, 「카다르」政府도 政權이 急速히 安定됨에 따라 굳이 經濟改革으로 政治安定을 圖謀할 必要性이 減少되어, 그중 일부분만을 남겨둔 채 전반적인 經濟改革은 中斷하였다.

그렇다고 「카다르」政權이 經濟改革의 必要性을 否定한 것은 아니었으며, 1968年の NEM採擇때까지 꾸준히 經濟改革의 幅을 넓혀나갔다. 즉, 「헝가리」의 경우는 改革의 必要性에 대해서 이미 1950年代부터 合意가 되어 있었고, 改革에 대한 政治的 支持 또한 충분히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헝가리」經濟가 1970年代에 다른 東歐國家들과 마찬가지로 國際經濟環境의 惡化에 따른 國際收支赤字, 國內物價上昇 等 심각한 經濟危機에 逢著했을때 일시적으로 1968年 改革 以前의 體制로 復歸한 때도 있었지만, 결국 1980년부터 다시 새로운 市場指向的 經濟改革을 實施하였으며, 1984년에는 그 범위를 擴大하는 措置를 취해왔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한편, 「헝가리」의 經濟改革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서도 指摘하였지만 經濟改革이 「헝가리」 政治·社會의 基本的 權力構造에는 아무런 變化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은 동시에 「헝가리」가 蘇聯의 影響圈內에서 20年 가까이 同一 線上에서 꾸준히 經濟改革을 擴大해 올 수 있었던 重要한 要因인 것이다.<sup>40)</sup>

---

註 40) 보다 자세한 내용은 .Knight, Op. cit. 및 .Hömann, Op. cit. 그리고 .Hare 外 2人, eds., Op. cit. 參照.

(1) 生産手段의 所有 : 根本적인 變化는 없다.

「헝가리」는 經濟改革을 推進하면서도 生産手段 國家所有의 基本原則에는 變化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非合法的인 個人所有企業을 強力하게 團束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그 效率性を 認定하고 1981년에는 個人企業의 範圍를 擴大하는, 즉 所得源泉의 私적인 追求를 合法化하는 措置를 취해 實質적으로는 生産手段의 私有를 認定하는 셈이 되었다.

그리고 勤勞者 集團이 國營企業이나 協同企業과의 契約下에 그들의 資産을 利用, 生産活動을 하는 小規模 協同 또는 類似 個人企業을 公式적으로 認定하고 있다.

(2) 意思決定 : 微視的 分權化

1968年の 改革措置는 年間計劃의 作成에 있어서 蘇聯式의 過程을 緩和하고, 지나치게 細分化된 物量計劃을 除去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즉, 年間計劃과 5個年計劃은 계속 作成되었으나 과거와 같은 強制的 指令의 性格을 띤 것이 아니라 「經濟的 調整裝置」로서 稅金 및 補助金, 利子率, 銀行貸付, 賃金調整, 換率政策, 價格政策 등 經濟活動의 全體的 指針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企業은 利潤을 最大로 하기 위하여 市場의 움직임, 특히 需要와 供給條件에 따라 決定되는 價格體系에 맞춰 運營하고 있으며,當局이 定한 일정한 基準內에서는 企業 스스로가 生産者 價格을 決定하고 있다.

또한 企業이 利潤을 減價償却基金, 勤勞者 所得向上에 寄與할 目的의 分配基金으로 留保하는데 있어서 또는 投資計劃의 樹立에 있어서 自律權이 附與되어 있다. 그 結果 政府主導 및 國立銀行 貸付 投資比率는 減少하고 있는 반면 企業主導 投資比率는 增加해 왔다<sup>41)</sup> 이에 맞춰 中央政府의 企業活動에 대한 直接的인 介入 可能性을 縮小하기 위해서 中央政府部處를 統合 또는 縮小해 왔다.

그러나 國營企業은 아직도 상당한 統制를 받고 있다.

### (3) 價格：競爭價格概念 導入

1968年 經濟改革은 市場機能 導入의 擴大와 物價安定을 동시에 追求하여, 消費財의 75%, 生産財의 30%는 계속 國家統制價格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도 國家의 細部指針下에 形式的인 自由價格으로 하는 價格改革을 實施하였으나, 그 結果는 1970年代 石油價格波動으로 인한 貿易赤字의 增大만 남긴 채 失敗로 끝났다.

이와같이 「헝가리」가 價格改革에 失敗한 理由는 國內價格과 國際價格을 連結하여 國際價格 變動에 맞춘 企業과 消費者의 支出「패턴」의 變化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稅金과 補助金에 의한 價格體制 介入으로 政府機關과 企業間의 協商에 의해 調整된 價格<sup>42)</sup>에 基礎한 收益性이 올바른 企業成果 測定의 基準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77-80年의 經濟改革에서는 稅金과 補助金の 介入을 줄

---

註 41) 1976年 52%에서 1981年 69%로 增加, 한편 國家는 鑛山, 에너지開發, 輸送, 社會間接資本등에 集中投資하고 있다. Knight, Op. cit., p.69.

42) 그 結果로 生産者價格이 消費者 價格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는 대신, 「競爭價格」의 概念을 導入하여, 消費者 價格과 生産者 價格의 關係를 價格彈力性을 利用하여 調整하고, 企業에 價格決定 自律權을 附與하며, 國內市場價格을 國際市場價格의 變動에 連結시키는 積極的인 措置를 취하였다.

한편, 「헝가리」는 企業의 效率的인 資金使用을 促進하기 위해 「資本稅」(Capital Tax)를 만들었으나 1980년에 그 效果가 분명치 않아 廢棄했다. 그대신 企業에 대한 銀行의 實質貸付 利率을 높이고, 企業이 一定的인 計劃目標을 達成했을 경우 利率의 일부를 割引해 주는 政策을 施行하였다.

換率에 있어서는 1968년부터 1982年 中半까지는 國際價格 上昇이 國內價格에 미치는 效果를 줄이기 위해 一定的인 原則이 없이 評價切上과 切下를 임의로 反復했으나, 1981年 10月에 「單一換率」을 採擇하여 國際價格과 國內價格을 연동시킬 수 있는 措置를 취하였다.

#### (4) 積極的인 刺戟制度

「헝가리」는 貨金體系 및 個人所得 調整을 통해 다음 4가지 目標을 追求하였다. 첫째, 巨視的인 均衡을 위해 購買力 成長 統制, 둘째, 약간의 個人間 所得格差는 認定, 셋째, 標準生活 維持, 넷째, 生産性 向上 등인데 위 4가지 目標을 同時에 追求하는 過程에 있어서 많은 矛盾이 發生하였다.

따라서 「헝가리」의 經濟改革은 이러한 矛盾을 除去하기 위한 많은 變化를 刺戟體系에 試圖하여 왔으며, 最近에는 生産性을 向上

시키기 위해 所得格差를 늘리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1968 年以來 勞動者 賃金은 基本賃金, 生産性和 關聯된 補助金<sup>43)</sup>, 年末 稅後 利益分配 等 세가지로 構成되어 왔는데 各 要素間 比率은 每年 企業管理者와 勞動組合間의 協商에 의해 決定되어 왔다.<sup>44)</sup> 그 決果 各 階層間 그리고 階層內의 基本賃金에 있어서도 많은 差異가 發生하였다.<sup>45)</sup>

(5) 競爭은 勞動市場에서도

原則적으로 「헝가리」는 企業의 利潤追求를 許容하고 있으므로 競爭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實際로는 産業構造上 높은 水準의 統合 - 「트러스트」, 大企業 - 에 의해 競爭을 制限해 왔다. 그 結果 企業의 效率性은 떨어지고 價格決定도 原價에 一定額을 더하는 「풀 코스트原理」 ( Full-Cost Principle ) 에 의해 獨寡占的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헝가리」는 1980 年以後 높은 水準의 企業統合을 止揚하고, 계속 損失을 내는 企業은 經營合理化 내지는 與信制限措置를 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倒産까지 시키는 등 競爭을 擴大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헝가리」는 勞動市場에서도 最上級の 勞動者를 確保하기

---

註 43) 「보너스」, 獎勵金 등

44) 일정하지는 않지만, 生産性 關聯 補助金이 全體 賃金의 30~60%, 稅後利益分配가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基本賃金으로 支給되었다. Knight, Op. cit., p.76.

45) 層內에서는 大略 60~80%의 差異가 나고, 層間에는 例를 들어 肉體 勞動者의 가장 높은 賃金은 非熟練勞動者 最低賃金의 6倍以上이었다. Loc. cit.

위해 各 企業은 치열한 競爭을 해야 하며, 國營銀行으로부터 與信을 確保하기 위해서도 競爭을 벌여야 한다.

以上 살펴본 「헝가리」의 經濟改革 推進過程은 企業들을 市場의 움직임에 反應케 하는 즉, 間接的인 手段에 經濟活動의 調整을 依存하는 範圍를 넓혀가면서도 中央計劃體制를 어느정도 維持하려는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헝가리」가 1970年代의 油價波動을 겪어나가는 適應過程을 통해 보면, 社會主義의 理想인 「平等」이란 目標를 維持하면서, 中央集中 意思決定 體系內에 市場價格의 變動을 反映하고, 國際價格과 國內價格을 연동시키는 것이 얼마나 複雜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다. 또한 油價波動과 같은 「外部로부터의 衝擊」은 經濟改革推進에 상당한 影響을 미쳐 經濟改革을 後退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促進시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改革推進者들이 어느정도 「政治的 同意」를 形成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方向이 決定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즉, 積極的인 經濟開放政策을 追求하는 경우 油價引上에 따른 國際收支赤字는 그렇지 않아도 충분치 못한 國內消費를 壓迫하게 되고, 投資는 延期되어 改革의 成果는 그만큼 늦게되며, 거기에다가 物質的 刺戟에 따라 個人所得 隔差가 發生됨에 따라 改革의 成果가 國民들에게 주는 利益이 분명치 않을 때, 強力한 政治的 同意가 形成되지 못하면 1970年代 中半의 「헝가리」처럼 再中央執權化로 될 수 있고, 반면에 政治的 同意가 形成될 경우에는 1979-80年

改革처럼 새로운 經濟改革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헝가리」의 經濟改革 方向은 어떻게 될까. 이  
點에 대해서 한편으론 「헝가리」가 앞으로도 계속 經濟改革을 擴  
大해 나갈 것이라고 보는 예상도 많지만, 「유고슬라비아」와는 달  
리 蘇聯의 影響圈內에 있는 「헝가리」가 1980年代에 1968年 經  
濟改革의 基本原理를 더욱 擴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見解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헝가  
리」 經濟改革過程을 통해 봤을 때, 「헝가리」指導層의 經濟改革  
必要性에 대한 認識이 분명하기 때문에, 漸進적으로 經濟改革을 擴  
大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다. 中 共

中共의 經濟改革은 한마디로 “共產主義體制를 살리기 위해 共產  
主義體制를 파괴한다”<sup>46)</sup>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전 人  
民日報는 “우리는 「마르크스-레닌」著作이 더이상 우리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實際에 눈을 돌려야 한  
다”<sup>47)</sup> 라고 主張했다.

이와같은 破格的 變革은 1978년에 鄧小平이 權力을 掌握하면서  
시작한 經濟改革이 어떠한 性格의 것인가를 斷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過去 急進的 左翼路線이 빛은 誤謬를 바로잡기 위해 施  
行되는 經濟改革 또한 經濟改革 推進者들까지 당황할 정도로 急進

---

註 46) U. S. News & World Report, Feb. 4, 1985, pp.36-37.

47) 人民日報, 1984. 12.7 日字 社說.

的으로 推進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실, 1978年の 經濟改革 以前까지 中共 國民들은 東歐諸國과는 比較가 안 될 만큼 經濟活動에 많은 制約을 받아 왔으며, 消費生活水準 또한 상당히 낮은 水準에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中共經濟의 中心的 制度였던 「人民公社」는 방대한 領土때문에 嚴格한 中央統制計劃에 비하면 實質的인 面에 있어서는 生産 및 投資 決定에 덜 從屬的인 편이었으며, 國民所得 水準이 비슷한 다른 國家들에 비해 衣食住의 基本的 欲求를 어느 정도 充足시켜 왔다.

따라서 國家的 次元에서는 社會主義 國家들 중에서 가장 教條的이고 閉鎖的인 中共이, 人民公社 水準에서는 市場과 價格이 經濟活動에 어느정도 影響을 미치는 社會經濟的 文化를 維持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그점이 中共이 1978年 農業部門의 改革을 시작한 以來, 經濟改革에 대해 國民들로부터 幅넓은 支持를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要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中共 特有的 社會經濟的 背景은 生産施設의 重複, 지나친 地域 自給自足 強調에 따른 地域間 連繫性 缺與 등의 結果를 낳아, 前述한 바와같이 「大躍進運動」과 「文化革命」의 「高速 度·高成長」目標達成을 위해 産業施設을 酷使하고 歪曲된 投資를 한 結果 惹起된 經濟沈滯을 더한층 壓迫하는 不作用도 가져왔다.

어쨌든 1978年 鄧小平의 復權以前의 經濟狀況은 耕作可能한 땅의 不足, 勞動力의 供給超過와 質的인 低下, 형편없이 낮은 質의 資本縮積, 投資構造의 2重性, 非效率的 小規模 工場의 過多 등 이루

다 지적할 수 없을 만큼 問題點을 안고 있었다.<sup>48)</sup>

따라서 한때 毛澤東政權下에서 「4人邦」으로부터 「走資派」로 몰려 肅清까지 당했던 實用主義의 人物 鄧小平은 自身이 政權을 잡게 되자, 政治的 基盤을 確固히 構築하고 國民들로부터 支持를 얻기 위해, 위와 같은 問題點을 解決하면서, 國民들의 消費生活 水準向上과 社會的 富를 增大시킬 수 있는 經濟體制 改革을 신중히 考慮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같은 背景에서 出發하게 된 中共 經濟改革의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sup>49)</sup>

첫째, 低成長일지라도 國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고, 「總生産量」(GMP; Gross Material Product)과 함께 「純生産量」(NMP)도 重視하며, 經濟的 效率의 向上에 重點을 두는 것이었다. 中共의 경우 비록 後進的 經濟構造이긴 했지만 1957-78年間的 年平均 NMP 成長率이 5%以上으로 推定되고 있는데, 1981-85年間的 「6次 5個年經濟計劃」에서는 4%의 經濟成長만을 目標로 하는 대신 國民所得中에서 消費의 몫의 增加를 피했다.

둘째, 企業經營에 있어서 意思決定 權限의 分權化, 物質的 刺戟手段의 導入, 所得分配의 平等主義 拋棄, 限定된 範圍內에서 市場 및 私的 經濟部門 許容 等이다. 이것을 實施하는데 있어서 中共은 農業部門의 改革을 먼저 推進하고 여기에서 經驗을 쌓은 다음 工業

---

註 48) Yeh, *Op. cit.* pp. 691-696.

49) 자세한 內容은 馬洪, 中國經濟發展의 新戰略, 張風波譯, 東京: 有斐閣, 1985. 參照.

部門에도 改革을 擴大하는 過程을 밟았다.

세째, 에너지開發, 交通運輸, 住宅建設 等に 重點을 두었으며, 技術發展, 重工業과 其他 工業의 均衡的 發展을 追求하고, 專門化와 地域間 連帶性を 強調하였다.

네째, 國際貿易 增大와 外國資本·技術導入을 위한 經濟開放을 推進하기 위해 海岸地域의 開發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1978年以後 中共의 經濟改革이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다. 中共은 經濟改革을 전반적으로 實施하기에 앞서 1979-81年間을 再調整期間으로 두고 經濟開發戰略의 轉換方向을 摸索하였으나, 1979-80年間の 結果는 計劃대로 投資를 抑制하거나 消費를 增加시키는데 失敗하였고, 財政赤字만 예기치 않게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中共은 1981年 11月 30日 - 12月 1日에 열린 第5期「全人大 第4次會議」에서 趙紫陽首相의 報告를 통해 지난 3年間の 經濟調整政策의 失敗를 指摘하고, 적어도 1986年 以後까지 向後 5年以上 經濟再調整 政策이 더 계속 되어야 한다고 宣言하였다.

그래서 1981年에 着手된 安定化 計劃은 投資를 抑制하고, 豫算 均衡을 回復하며, 이를 위해 行政手段, 價格統制, 資金調達制限 等を 強化할 것을 主要 內容으로 推進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2年 12月 10日 「全人大 5次會議」에서 通過된 「6次 5個年經濟計劃」도 1981年의 安定化 計劃의 延長線上에서 農業과 工業의 生産性を 增加시키되, 基本 建設投資는 抑制하며, 現存 企業을 整頓, 改造하고, 物價安定과 國民生活의 安定을 期하는 것을 主要 內容으로 作成되

었다.

그러면서도 同 計劃은 「1981-2000年間 中共 經濟建設의 戰略 目標」는 全國 農工 總生産량을 增大시켜, 「國民所得」(National Income)과 主要 生産량을 世界 先進水準으로 提高하는데 두고, 이를 위해 中共은 實驗的이고 漸進的이며, 順序的인 接近으로 行政的 分權화와 制限的인 經濟的 分權화를 推進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sup>50)</sup>

이와같은 中共 經濟改革의 頂點은 1984年 10月에 열린 「中共黨 第12期 3中全會」에서, 經濟管理에 있어서 「價值法則」에 의한 市場經濟原理를 더 많이 導入하는 한편 對外開放政策도 強化해 나가는 것을 骨子로 한 「經濟體制 改革에 관한 決定」을 採擇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51)</sup> 이 決定에서 中共은 毛澤東式 經濟開發 戰略을 全面 否定하고,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混合經濟體制 構築이라는 中共建國後 最大의 「經濟革命」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中共의 經濟改革이 完全히 本 軌道에 오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3中全會」의 決議가 革新的이고 賭博에 가까운 것이어서, 앞으로 運用을 해 나가는 過程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큰 混亂이 惹起될 수 있는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으며, 이미 企業, 管僚, 國民들이 經濟改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여 많은 問題點이 發生하고 있고, 中共이 經濟運用에 資本主義的 要素를 相當部門 導入했다 하더라도 결코 中共이 이대로 西方化 한다든가

---

註 50) Zhao Ziyang, "Report on the Sixth Five-Year Plan", Beijing Review, No. 51, 1982, pp. 10-35.

51) 東亞日報, 1985. 1. 21.

資本主義化할 수 없는 많은 障壁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以下 中共의 經濟改革 推進內容을 具體的으로 各 部門別로 살펴 보겠다.<sup>52)</sup>

(1) 生産手段의 所有 : 根本的인 變化는 없다.

中共은 經濟改革을 통해 生産手段의 所有形態에는 根本的인 變化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農業部門에서는 個人이 農事를 질 수 있는 自營地 面積이 增加하고, 農家收入中 個人耕作 所得이나 副業 所得 比率이 增加했기 때문에 實質的으로는 生産手段의 私有를 認定한 셈이 됐다.

(2) 意思決定의 分權化 : 生産責任制 導入

農業部門에서 「生産責任制」는 1978年 12月 「中共黨 第11期 3 中全會」에서 採擇되어 部分的으로 實施되다가 1979年 모든 水準에 勸獎되고, 1980년에는 여러 地域에서 公式的으로 採擇되기에 이르렀으며, 1983년에는 全農家の 90%以上 生産責任制가 普及되기에 이르렀다.

生産責任制는 各 地域의 特殊性에 맞춰서 多様な 形態로 運營되었는데 發達된 地域인 경우에는 協同的 生産, 分配를 原則으로 實施되었고, 低所得 地域일 경우에는 家口別 生産責任制를 實施하여

---

註 52) 자세한 內容은 .Knight, Op.cit., pp. 42-61과 K.C.Yeh外, "The Readjustment in the Chinese Economy", The China Quarterly, No.100, DEC. 1984 그리고 China Today, Beijing Review Special Feature Series, Beijing : Beijing Review, 參照

個人的으로 處分할 수 있는 範圍를 넓혀 주었다.

이와같은 生産責任制는 特定作物栽培 強制를 緩和하고 收買價格을 引上하는 措置와 함께 國家 調達目標을 減少시켜, 農民들에게 農産物 生産, 販賣에 있어서 自律的으로 決定할 수 있는 權限을 部分的으로 委任하는 것이었다.

한편 1982年 12月에 採擇된 新憲法에서 中共은 人民公社의 政治的·行政的 機能을 地方政府에 移管하고, 經濟的 機能은 會社, 企業 등의 形態로 改編된 組織에 移管하는 措置를 斷行했다.

工業部門의 「生産責任制」는 1979年 7月 「國務院」이 「國營工業企業의 經營管理 自主權 擴大에 관한 規定」을 가결한 以來 四川省을 중심으로 實施되어, 1980年 중반에는 이미 6,600餘 國營企業으로 擴大되었다. 즉 企業이 投資計劃 決定이나 商品販賣에 대한 自律權을 갖고, 超過利潤이나 損失減少를 가져왔을 경우 그것의 상당부분을 企業이 留保하여, 그 留保利潤과 減價償却 基金을 一定한 範圍內에서 個別企業이 自律的으로 使用할 수 있게 하였으며<sup>53)</sup> 企業投資資金의 源泉으로 銀行의 信用을 利用하는 것을 擴大하는 意思決定의 分權化를 施行한 것이다.

그러나 工業部門의 投資計劃 決定의 自律化는, 政府가 전반적인 投資水準을 統制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으며, 政府나 各 企業이 投資計劃을 決定하는 데 있어 代案을 評價할 수 있는 客觀

---

註 53) 大略 40%以內는 獎勵金 및 福祉事業에 使用하고, 나머지는 企業의 生産 施設 改善 및 擴張에 使用. .Knight, Op.cit. p.50.

의인 基準, 특히 價格體系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企業의 效率性を 높이고, 資源配分の 合理化를 기할 수 있는 方向으로 投資計劃이 決定되지 못하는 問題點을 發生시켰다.

그리고 對外貿易에 있어서는 「貿易部」가 獨占하던 것을 地方政府나 企業이 相當 部門까지 직접 輸出入業務를 遂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地方政府나 企業이 일정한 條件下에서 外貨를 自體的으로 保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中共의 對外貿易의 分權化는 貿易收支均衡을 維持하고, 外換保有庫 減少를 막기 위하여 다른 어떤 部門보다도 가장 자주 政策變化를 가져 왔다.<sup>54)</sup>

### (3) 價格: 制限的인 配分機能

1978年 經濟改革 以來 最近까지 中共은 製品의 2/3는 國家가 價格을 決定하고, 나머지 1/3 정도는 地方政府가 價格을 決定하는 制限的인 價格改革만을 實施하였다. 그러나 所得分配에는 상당한 影響을 미쳐 자가용을 가진 農民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工業 및 商業價格은 原則的으로 市場의 需要·供給條件에 의한 것이 아닌, 原價에 一定額을 더하는 方法이 오랜 期間동안 變하지 않았다.

반면에 農産物 價格決定은 1次 計劃收買에서는 基本價格을 支拂받고, 2次計劃 收買에서는 基本價格에 「附加金」(Premium)을 더해서 支拂받으며, 나머지는 3次計劃 收買를 통해 政府와 協商을 해서 決定된 價格을 支拂받거나, 農民市場을 통해 自由處分할 수

---

註 54)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 21, 1985, pp.75-81.

있는 制度를 採擇하였다.

그밖에 中共의 價格體系 改革에서 두드러진 것은 企業의 銀行信用 利用增加에 따른 利率 上昇이다. 1978年 以後 中共은 여러차례 利率 引上措置를 취했으며, 最近에는 實驗的으로 小規模 銀行들의 利率 決定에 彈力性을 附與했는데, 이같은 政策의 背景은 基本建設 投資資金 放出로 인해 總 通貨量이 過多流通되고 있고 價格體系的 改革에 따라 「인플레이」가 유발되자 이를 吸收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對外貿易 增大에도 불구하고 國內價格은 國際價格과 分離되어 있으며<sup>55)</sup>, 單一 換率制가 確立되지 못해 換率은 制限的인 役割만 遂行하고 있다.

#### (4) 物質的 刺戟手段 및 競爭의 擴大

中共은 賃金制度에 獎勵金과 成果給의 利用을 擴大하여 왔다. 雇傭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勞動力을 當局이 計劃에 의해서 分配하고 企業은 勞動計劃에 따른 一定數를 雇傭할 義務가 있으나, 最近에는 점차 企業이 勞動者를 選擇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고 企業이 勞動者를 마음대로 解雇할 수는 없다.

그리고 農業部門의 自營地 生産 및 計劃超過分生産 販賣, 協同企業이나 個人企業의 商品과 「서어비스」販賣, 國營企業에 있어서는

---

註 55) 輸入品중 일부(20%内外)만 公式換率에 의해서 評價되고, 나머지는 輸入 關稅, 其他 稅金이 包含되어 決定됨. Knight, Op. cit. p. 58.

計劃超過 生産分 販賣에 自律權이 許容되어 있어, 各 生産者間에 競爭이 存在하고 있다.

#### (5) 積極的인 對外開放政策 推進

中共은 內部 經濟改革과 동시에 對外開放政策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中共이 그들의 現代化計劃에 必要한 資金, 技術, 設備 等を 調達하기 위해서는 對外經濟 協力の 擴大가 무엇보다도 必要하다는 것을 認識하고 1978 年の 「中共黨 第 11 期 3 中全會」에서 對外開放政策을 發表한 後, 中共은 美國, 日本等 資本主義國家들의 巨大한 市場으로 登場하면서, 外資導入이나 對外貿易部門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措置들을 계속 實施해 오고 있다.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은 「經濟特區」와 「經濟開放都市」의 設置를 통한 積極的인 外資導入 推進이다. 中共은 1979 年 7 月 效率的인 資本과 技術導入을 위해 經濟特區設置 計劃을 發表하고 廣東省의 深圳, 珠海, 汕頭를 1980 年 8 월에, 福建省의 廈門을 1980 年 10 월에 經濟特區로 指定 開放하였고, 經濟特區가 어느 정도 成果를 거두자 1984 年 4 月에는 上海, 大連, 天津 등 14 個 沿岸都市와 海南島를 經濟開放都市로 指定하였다.

또한, 中共은 1979 年 7 月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制定한 데 이어, 1980 年 10 月에는 「合資企業 所得稅法」을 制定한 後 各種 投資關係法을 補完, 中共에 대한 外國人 投資環境을 整備해 왔다.

그러나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은 다른 經濟改革政策보다는 影響을 받는 變數가 많고 그 波及效果가 크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擴大해

나간다는 것 외에는 改革論者間에도 具體的으로 定立되어 있지 못한 狀態라고 볼 수 있으며, 많은 西方의 企業들은 中共과 去來를 하는데 아직도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불평하고 있다.<sup>56)</sup>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中共의 經濟改革은 農業部門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工業部門에 있어서도 總算出에 대한 投入比率이 減少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效率性이 增大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工業部門의 勞動生産性은 停滯되어 있으며, 技術이나 經營革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總體的 投資에 대한 政府의 中央統制가 弱화되고 있어, 아직은 經濟改革이 質的으로 中共經濟의 效率性을 增大시켰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段階이다.<sup>57)</sup>

그리고 1984年 10月 經濟改革以後 급격한 輸入增加에 따라 外換 保有高가 계속 減少하고 있으며, 行政官吏들은 職權을 利用, 所謂 「3代弊習」을 刺行하고 있고,<sup>58)</sup> 物價上昇을 예상한 投買行爲, 過度한 基本建設投資 擴大, 投機的 生産, 獎勵金 濫發등 各種 問題가 發生하고 있어, 자칫하면 다시 1981年과 같은 經濟改革 再調整을 할 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다.<sup>59)</sup>

그러나 鄧小平도 밝혔듯이,<sup>60)</sup> 中共이 지금까지 推進된 經濟改革

---

註 56) “中共이 달라지고 있다(4)”, 한국일보, 1984. 10. 26.

57) 前記, p.34 (表5, 表6)

58) 人民日報, 1985. 1. 28.

59) 朝日新聞, 1985. 4. 21.

60) TIME, Nov. 4, 1985, pp.26-27.

成果를 土臺로 보다 深化되고 包括的인 經濟改革을 계속 推進해 나갈 것으로 展望할 수 있는 것은, 中共 國民들이 經濟改革에 대해 상당히 好意的인 支持를 보내고 있어 큰 變動이 없는 한 鄧小平의 後繼者도 現在의 路線을 밟아 나갈 것으로 期待되기 때문이다.

#### 4. 結 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各國의 經濟改革 推進內容은 그 나라의 政治 社會的 背景과 經濟狀況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똑같은 刺戟일지라도 各國의 事情에 따라 상반된 反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에서 本稿가 의도한 北韓의 經濟改革 可能性 및 展望을 하는데 必要的 比較基準을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소의 무리는 따르지만, 各國의 특수한 經驗은 접어두고, 共通的인 經濟改革 經驗을 中心으로, 經濟改革의 가장 중요한 部門인 意思決定의 分權化와 北韓의 經濟改革 可能性 및 推進方向을 豫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內容을 整理해 보았다.

##### (1) 意思決定의 分權化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改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經濟的 意思決定의 分權化」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意思決定의 分權化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行政的 分權化」이다.

이것은 意思決定의 階層的 構造의 上部에서 下部로 意思決定權限을 委任하는 것이다. 그 目標은 經濟管理의 合理化 내지는 中央統制의 強化이며, 期待效果는 上部構造가 意思決定의 負擔을 줄이는 대신 投資配分, 對外政策決定등 巨視的 意思決定에 專念케 하고, 各 經濟單位의 活動의 統合을 손쉽게 하는 것이다.

둘째, 「經濟的 分權化」이다.

이것은 生産品 選定, 資源配分, 所得分配에 있어서 市場의 役割을 增大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中央當局의 權力弱化, 企業의 自律權 擴大, 中央의 直接統制를 間接的 經濟調整으로 代替, 需要와 供給 및 國際價格 變動에 따른 價格決定, 利潤에 의한 企業의 成果測定 및 勞動者 賃金決定, 生産單位間 競爭등이 經濟的 分權化를 통해 실시된다. 行政的 分權化는 반드시 經濟改革을 念頭에 두지 않고서도 實施될 수 있는 것이며, 企業의 自律權 認定과는 반대로 中央의 統制強化를 위해서 實施될 수 있는 것이나, 經濟的 分權化는 實質的인 經濟改革推進을 目標로 實施되는 것이다.

따라서, 行政的 分權化는 앞에서 살펴본 첫번째 類型的 經濟改革이라고 볼 수 있고, 經濟的 分權化는 세번째 類型的 經濟改革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企業內 分權化」이다.

이것은 「유고슬라비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聯合企業의 경우 下部 企業이나, 企業內的 勞動組合과 같은 組織 또는 企業의 管理者에게 企業의 運營에 대한 決定權을 委任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企業內 分權化는 經濟的 分權化가 進

行되면서 함께 實施된다.

그런데 점점 複雜해지는 經濟體制가 急變하는 國際經濟環境속에서 適應力을 높여, 國內外 需要에 效率的으로 反應키 위해서는 經濟的 分權化가 主要한 推進力이 됨은 물론이다.

## (2) 經濟改革에 影響을 주는 要素들

대체적으로, 社會主義 國家들이 經濟改革을 推進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改革推進에 따라 權力 및 所得分配에 變化가 惹起되어, 既存 體制나 社會主義의 理念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는 가장 큰 障礙要因이 되어 왔다. 또한 어떤 類型의 經濟改革이든지 經濟的 動機와 동시에 政治權力者가 改革의 必要性을 어떤 식으로든지 認識하게 되었을 때 改革의 實施可能性은 높아지는 것이었으며, 일단 시작된 經濟改革이 계속 擴大되면서 推進될 수 있는가, 아니면 다시 이전의 經濟體制로 돌아갈 것인가는 改革推進者가 改革에 대한 國民들의 支持와 政治的 同意를 形成할 수 있었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改革의 成果는 충분한 期間이 경과한 다음에야 서서히 나타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政治指導集團과 國民들은 그 사이에 發生된 各種 副作用에 반발하여 改革推進者들을 批判하였고 經濟改革은 後退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經濟改革을 20年 가까이 推進해 온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의 경우는 改革推進에 必要한 要素, 즉 政治的 理解와 國民들의 支持를 어느 정도 얻은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경우도 改革이 充分한 成果를 거두는데 必要한 政策代案

의 技術的 一貫性 내지는 堅實性 側面에 있어서는 많은 問題點을 나타내 왔다. 그리고 이 두나라를 包含하여 經濟改革을 推進한 모든 社會主義 國家들은 아직까지 經濟改革의 限界 즉, 社會主義 國家 建設의 理念과 經濟改革에 따라 導入되는 資本主義的 要素間의 葛藤을 克服할 수 있는 뚜렷한 代案이 提示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積極的인 經濟改革에 대한 必要性을 느끼면서도 막상 具體的 實行은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改革의 動機야 어떠했든지 그 目的은 經濟的 效率性を 增大시키는 것이었으나, 現實로 나타난 經濟成長이 具體적으로 改革의 成果인지 다른 要因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지질 않고 있다. 그 까닭은 아직까지 어떤 社會主義 國家도 經濟改革을 全面的으로 實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既存 計劃經濟의 要素와 改革要素가 서로 混合되어 있는 狀態속에서, 經濟成長이 어떤 要素의 結果인지 가려낸다는 것이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觀點에서 經濟改革推進에 影響을 주는 그밖의 內容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經濟改革은 外部 經濟環境이 良好하고, 內部的으로는 外換保有, 勞動力, 資源 등에 어느 정도 餘裕가 있을 때 순탄하게 推進될 수 있다. 즉, 經濟改革은 그 나라의 經濟가 상당한 水準의 産業化 段階에 있을 때, 또는 後進的 産業構造일지라도 國內資源面에서 여유가 있을 때 成功할 可能性이 높은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經濟改革을 推進하는 過程에 國際經濟가 惡化될 경우, 이 같은 外部衝擊에 의해 國內經濟는 改革以前보다 오히려 더 惡化되

어, 改革推進을 後退시키게 될 確率이 높다. 이때 國際經濟狀況變動에 따른 衝擊을 緩和시키는데 外部의 도움이 作用된다면, 반대로 經濟改革은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 推進될 수도 있다. 이같은 예는 東歐諸國의 경우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1970年代에 한때 1968年NEM 以前の 體制로 돌아서다가 1980年 다시 새로운 經濟改革을 시작한 「헝가리」의 경우는 그 代表的인 例라고 볼 수 있다.

둘째, 經濟改革이 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巨視的 經濟改革 政策과 企業水準의 意思決定間에 一貫성을 保障해 줄 수 있는 적절한 「中間 政策代案」이 必要하다. 東歐諸國들은 물론 中共도 이같은 中間 政策代案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經濟改革이 成果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즉, 아직까지 社會主義 國家들은 市場機能에 따른 價格決定制度和 賃金決定制度, 總體的 投資需要를 統制하는 金融·財政手段, 적절한 換率政策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改革推進에 따라 銀行이 投資決定에 보다 많은 役割을 하게 되었지만, 商業銀行들간의 競爭에 의해 投資財의 流動性和 分配의 效率的 役割을 增大시킬 수 있는 方案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企業의 成果指標에 있어서는 總生産量, 純生産價值, 利潤, 利潤率 등 여러가지 다른 指標가 일관성없이 사용되고 있고, 物質的 刺戟手段으로 사용되는 賃金制度의 改革의 경우에도 基本給과 成果給間의 構成比率, 成果給內에서 個人의 成果와 企業의 成果間의 反映比率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形態가 平等原則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勤勞意慾을 鼓吹시키는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代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 經濟改革이 成功을 거두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各種 政策手段間에 充分한 「連繫性」이 保障되어야 한다. 例를 들어 改革의 目標中 하나가 國內企業의 國際市場에서의 競爭力을 強化하는 것이 라면, 改革推進者는 財政政策 및 換率, 價格政策등을 동시에 推進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目標는 達成될 수가 없는 것이다.

네째, 만약 周邊國家들이 동시에 經濟改革을 推進한다면 改革은 보다 쉬워질 것이며, 특히 蘇聯이 經濟改革에 積極的이 되면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改革은 보다 쉬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蘇聯이나 周邊國家가 經濟改革을 推進한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經濟改革을 반드시 推進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이 가장 重要하면서도 어려운 것인데, 經濟改革은 그 內容이 內部的으로는 물론 對外的으로도 政治的, 理念的으로 受容될 수 있어야 한다.

## Ⅳ. 北韓의 經濟改革 可能性과 展望

### 1. 最近 北韓의 經濟政策 變化動向

社會主義 國家들 중에서 北韓은 「알바니아」와 함께 가장 閉鎖的이고 中央執權的인 計劃經濟體制를 固守하여 왔다. 그렇다고 北韓이 1946年以來, 經濟政策이나 管理面에서 아무런 變化없이 經濟發展計劃을 推進해 온 것은 아니다. 지난 40餘年間 北韓의 經濟政策이나 管理의 흐름을 훑어보면 北韓도 經濟問題에 부딪힐 때마다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많은 變化를 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그 變化의 方向이 「유고슬라비아」나 「헝가리」, 中共등과 같이 前述한 經濟改革의 第3類型 내지는 經濟的 分權化쪽에 두어진 것이 아니라, 黨과 行政機關의 統制를 強化하는 쪽으로 始終 一貫해 왔다. 그런데 北韓이 그같은 態度를 完全히 바꾼 것은 아니지만, 1970年代 後半期以後 새로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970年代에 北韓의 經濟成長이 계속 停滯되면서, 보다 더 積極的으로 經濟政策이나 管理改善을 摸索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南北韓間의 體制競爭에 있어서 重要的 指標가 될 수 있는 1人當 國民所得이 70年代 初에 對韓國 優位가 逆轉되면서 점점 그 格差가 벌어지자, 이에 초조해진 北韓當局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積極的으로 經濟沈滯의 돌파구를 찾는 데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선 「地方豫算制」의 强

화를 들 수 있다.北韓은 經濟規模가 커지고 産業構造가 複雜해지는 趨勢에 맞춰, 中央의 計劃과 豫算負擔을 줄이고 地方産業을 育成할 目的으로, 1973年부터 金日成의 指示에 따라 地方豫算制를 導入했다<sup>61)</sup>

이 새로운 豫算制度가 어느정도 實效를 거두자 1978年 12月15日에는 「中央人民委員會」政令을 통해 法制化하는 한편<sup>62)</sup> 그뒤 1983年 12月에는 金正일이 主導하는 「輕工業革命」과 「人民奉仕革命」을 뒷받침하기 위해 地方豫算制 強化를 促求하는 實務會議를 開催하기도 했다.

地方豫算制度와 같은 脈絡에서 實施되고 있는 「經濟機構의 改編」도 北韓이 最近 드러낸 새로운 움직임의 하나이다. 물론 그 以前에도 經濟機構의 改編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그 趣旨面에서 80年代에 實施된 改編과는 달랐다. 다시 말해서 最近의 機構改編은 地方豫算制度和 함께 行政的 分權化를 念頭に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전의 것들은 그런 考慮가 적었다. 이같은 經濟機構 改編의 첫번째는 1981年 10月을 前後해서 實施된 經濟機構의 縮小 改編 및 道級 「經濟指導委員會」의 新設이다. 이때 北韓은 「政務院」의 37個 部處中 29個 部處로 肥大化된 經濟部處를 「工業部」를 중심으로 大幅 統廢合하여 機構數를 縮小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地方의 道級에 「經濟指導委員會」

註 61) 朝鮮中央年鑑 1976年, pp. 332 - 333 參照.

62) 로동신문, 1978. 12. 16. p.1.

를 새로이 만들어 從來 中央部處가 專擔하던 生産指導, 監督機能의 一部를 移管했으며, 中央經濟部處로 하여금 企劃, 研究 및 技術指導, 資材配分の 調整, 輸出入業務 등만을 擔當케 했다.<sup>63)</sup>

그러던 중 1985年 5月에는 經濟管理 機能의 行政的 分權化를 더욱 強化하고 行政機關과 委員會의 二重的 生産監督 構造에서 오는 浪費를 없애기 위해, 두 機構를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로 一元화시켰으며,<sup>64)</sup> 또다시 1985年 10月 1日과 11月 19日 두차례에 걸쳐 中央의 經濟機構中 機能이 비슷한 部處를 委員會 中心으로 합치는 縮小改編을 斷行하였다.<sup>65)</sup>

이러한 經濟機構 改編과 함께 北韓은 政務院의 總理, 副總理 등 幹部를 젊고, 實用主義的 傾向이 있는 「經濟技術管僚」로 대거 交替함으로써, 過去 黨性으로만 이끌어오던 經濟管理에 專門性을 가미하는 등, 經濟機構 改編의 內實化에도 힘써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66)</sup>

또하나 最近 北韓 經濟動向中 두드러진 것은, 그들 스스로 社會主義의 過渡期的 管理方式이라고 性格을 規定짓고 있는 「獨立採算制」 實施를 1984年末부터 強化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北韓에서 獨立採算制가 처음 強調된 것은 金日成의 執權初期부터였지만, 獨立採算制 實施에 要求되는 「物質的 刺戟體系」와 企業 成果指標로서

註 63) 로동신문, 1981. 10. 14. 社說.

64) 北韓은 「불가리아」共産黨 總書記 「집코브」를 환영하는 平壤 市民大會에서 처음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란 名稱을 使用.

65) 로동신문, 1985. 10. 2 및 1985. 11. 21 參照.

66) 1985. 12. 1. 現在 總理 및 副總理 4名 全員이 經濟技術 官僚임.

「利潤動機」의 導入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實施를 못해 오다가, 1984年 12月 「黨 第6期 10次 全員會議」에서 現 北韓經濟의 沈滯된 效率性을 높이고 豫算負擔을 줄이기 위해서는 獨立採産制를 擴大 實施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結論짓고,<sup>67)</sup> 1985年부터는 生産企業은 勿論 非生産企業, 公演團體와 같은 半豫算制 機關에서도 「半獨立採算制」란 이름으로 實施해 오고 있다.<sup>68)</sup> 그 結果 職種間에는 勿論 한 企業所內에서 같은 種類의 일을 하는 비슷한 水準의 勞動者間에도 賃金隔差가 생기게 되었으며, 심지어 企業의 成果가 좋지 못할때는 基本賃金を 깎는 企業所까지 등장하게 되었다.<sup>69)</sup>

이같이 北韓이 物質的 刺戟에 의한 勤勞意慾 鼓吹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企業의 成果 測定方法의 合理化를 摸索하고 있다는 사실은, 北韓이 經濟問題를 「經濟的 手段」으로 풀려고 하는 새로운 樣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對外經濟政策에 있어서는, 1970年代 중반 經濟發展에 必要한 資本 및 施設을 導入하기 위하여 줄곧 閉鎖하여 왔던 對西方 門戶를 약간 열었다가 기대한 效果는 얻지 못한 채 外債가 賤을 能力을 超過하여 궁지에 몰리는 結果만을 가져오자 다시 움츠러 들었으나, 最近 中共을 비롯한 東歐諸國이 西方과의 활발한 貿易과 資本導入으로 經濟發展을 이룩하고 있는데 刺戟을 받아, 1984年 1月 「第7期 3次 最高人民會議」에서 다시 未修交 資本

註67) 로동신문, 1984. 12. 11. “黨6期 10次 全員會議의 報告文”

68) 로동신문, 1985. 6. 16. “科學的인 企業管理 運營法, 反獨立採算制”

69) 朝日新聞, “北韓訪門記” 중 1985. 5. 23. “獨立採算” 參照.

主義國家들과도 對外經濟協力을 強化해 나간다는 方針을 採擇하는 한편, 1984年9月8日에는 西方으로부터의 資本 및 技術導入을 推進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로서 「합영법」을 制定 公表하기에 이르렀다.<sup>70)</sup>

이 같은 變化는 北韓이 對外經濟協力에 있어서 借款등의 積極的인 外資導入을 推進한 다거나, 完全히 「政治·經濟分離原則」에 의해서 「輸出을 위한 輸入」을 하겠다는 데까지 轉換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극도의 閉鎖的인 經濟政策과 比較해 볼 때는 北韓이 상당한 變化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2. 經濟改革 可能性

以上 살펴본 最近 北韓經濟의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면, 이미 北韓도 상당한 정도의 經濟改革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政策變化와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는 內面的인 實狀을 살펴보면, 아직도 北韓은 東歐諸國이나 中共이 해온 經濟改革과는 상당한 距離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地方豫算制나 經濟機構改編, 獨立採算制등이 단지 經濟規模가 커지고 多樣化됨에 따라 增加하는 國家豫算과 計劃作成의 負擔을 줄이고, 黨과 行政機關의 統制를 쉽게 하자는 目的에서 實施되고 있는 것이며, 各措置間에 時期的으로나 技術的인 面에서의 一貫性이 없음은 물론

註 70) 자세한 內容은 金永圭 “自力更生の 限界를 드러낸 것인가”, 統一, 1984年10月號, pp.64-70 및 로동신문, 1984. 1. 27. “第7期 3次 最高人民會議 金日成演說文.” 參照.

그 實行을 뒷받침하는데 必要한 價格體系나 換率, 財政·金融政策의 合理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71)</sup> 따라서 아직까지 北韓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使用하는 의미의 經濟改革을 實施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北韓은 東歐諸國이나 中共보다도 더 심각한 經濟問題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經濟改革을 實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北韓에는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보다도 더 많은 障礙가 經濟改革앞에 놓여 있다는데서 구할 수 있다.

北韓에서 찾아볼 수 있는 障礙要因중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社會主義 國家들의 경우 經濟改革 推進은 거의 전적으로 執權者의 判斷에 달려 있는 것인데, 金日成은 現在 北韓이 직면하고 있는 經濟問題들을 既存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를 固守하면서도 克服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點이다<sup>72)</sup> 아니 차라리, 金日成이 現在 北韓이 직면한 經濟問題들의 性格과 深刻性を 알던 모르던, 지난 40年間の 자신의 統治를 마무리하는 段階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經濟體制를 修正한다는 것은 極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

---

註 71) 北韓은 獨立採算制 實施에 따라 企業所로 하여금 自體生産品의 價格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있다고 發表하고 있으나 制限的인 範圍內에서 許容하고 있는 것이며, 市場에서의 需要와 供給條件을 고려해서 결정토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獨立採算制의 主要 要件으로 「黨統制의 強化」, 企業의 國家에 대한 「責任性」을 계속 強調하고 있다. 로동신문, 1985. 9. 5, 12. 14. 參照.

72) 金日成, 會見記錄, “解放四〇年を迎えて”, 世界, 東京: 岩波書店, 1985年8月號, pp. 190-193.

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물론 金日成이 死亡하기 전에 金正日의 權力基盤을 構築해 주는 方案의 하나로, 金正日의 指導아래 推進되고 있는 「輕工業革命」, 「人民奉仕革命」등을 支援할 目的에서 經濟改革을 고려하게 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現在 推進中인 政策變化의 水準을 넘지 않는 즉, 現 體制의 基本을 건드리지 않고, 黨과 行政의 中央統制를 弱화시키지 않는 變化만을 피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經濟改革이 執權者의 死亡 또는 退進後에 새 執權者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例에 비취왔을 때, 北韓이 現在 金日成體制下에서는 實質的인 經濟改革을 考慮할 可能性이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로, 찾아볼 수 있는 障礙要因은 흔히 指摘되고 있는 것인데, 北韓은 다른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神格化된 金日成에 대한 「偶像崇拜」와 論理的으로 애매한 唯一 「主體思想」으로 모든 問題를 풀어나가는 非合理的 社會라는 점이다. 따라서 金日成을 비롯한 北韓의 指導階層은, 經濟改革이 실시될 경우 가져올 合理的 思考의 增大로 이같은 北韓의 既存 理念體系나 政治體系에 불리한 否定的 要素가 惹起될 것을 우려하여 經濟改革에 반대하는 立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東歐諸國이나 中共의 경우에도, 經濟改革 進行에 따라 經濟的 意思決定이 下放되면서 既得權을 喪失하게 된 特權官僚階層의 심한 抵抗이 經濟改革의 큰 障礙要素로 指摘되어 오고 있지만, 北韓의 경우는 아예 現 體制를 지탱해 주는 基本理念이 崩壞되는 衝擊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南北韓間의 體制競爭」에 따른 北韓 經濟力의 限界이다. 즉, 北韓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南北韓間의 經濟力 隔差에 초조해져서 어떻게 하든지 北韓의 經濟發展速度를 높일 방도를 摸索하고 있으면서도, 南韓의 赤化野慾을 拋棄하지 않는 限 현재의 過重한 「軍事費」의 對GNP比率을 維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北韓의 限定된 投資資本에 壓迫을 가해, 經濟改革을 實施할 때에 必要的인 資金과 資源의 動員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이다.<sup>73)</sup>

이같은 經濟壓迫과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社會主義 國家의 경우도 改革實施 初期에 부딪혔던 問題로서,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 特徵의 하나인 重工業 優先政策과 北韓이 80年代 접어들면서 積極 推進하고 있는 「5個地區戰線建設」<sup>74)</sup>, 「4大 自然改造事業」<sup>75)</sup> 등으로 이미 벌려놓은 建設事業에서의 投資需要가 엄청나, 이 事業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限 다른 事業에 投資할만한 經濟力의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北韓이 부족한 投資財源을 충당하기 위해 外資導入을 생각하게 되고, 「合營法」과 같은 制度的 裝置까지 만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金日成은 南北韓間의 體制競爭을 벌이

---

註73) 北韓의 軍事費對 GNP比率은 84年 豫算支出基準 23.3%로 推定되고 있다. 國土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比較 1984, p. 35.

74) 순천, 청진, 안주, 함흥, 남포지구

75) 30만정보 간석지개간, 20만정보 새땅찾기, 남포갑문건설, 태천발전소 건설

고 있는 狀態에서, 南韓에 뒤떨어진 北韓經濟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外債에 依存하지 않는 「自力更生」뿐이라고 判斷하고 있고, 이미 70年代 後半에 北韓도 한차례 진통을 겪었지만 설불리 對外開放을 하는 경우 經濟成長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外債만 갚을 能力을 超過하는 例를 東歐諸國에서 보아 왔으며, 무엇보다도 現在 北韓의 對外信用이나 內部 投資與件이 여의치 못해 西方이 北韓에 投資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北韓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合營法」을 만들어 놓고도 한편으로는 外資導入의 必要性을 否定할 수 밖에 없는 立場인 것이다.<sup>76)</sup>

따라서 北韓의 「合營法」도 그 內容이 現在까지의 推進 實績을 살펴보면, 對外借款導入이나 中共의 經濟特區 設置와 같은 積極的인 對外開放政策이 아니라, 嚴格한 合資形態인 「合營企業」을 통해 1984年末 現在 約 23億\$에 달하는 外債償還에 도움을 받겠다는 소극적인 對外開放措置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한편, 다른 社會主義國家들의 經濟改革 推進이 北韓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北韓의 政治行態나 다른 나라의 例에 비춰 봤을 때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北韓의 經濟政策 變化 動向에서도 나타났듯이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 특히 中共의 經濟改革으로부터 어느 정도 影響을 받기는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그 影響에 의해 北韓이 經濟改革을 實施할 것이라고 判斷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北

---

註76) 金日成, Op. cit. p. 192.

韓과 비슷한 例로써 「알바니아」의 경우 東歐諸國中 1人當 國民  
所得이 가장 낮고 經濟沈滯가 深刻하면서도 유일하게 극단적인 閉  
鎖政策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나, 中共이 蘇聯의 牽制 때문에  
北韓에 대해 經濟改革을 強要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現 情勢에 비  
추어 봤을 때에, 北韓의 經濟改革 實施에 다른 國家들이 미칠 수  
있는 影響이 制限的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의 經濟事情은 그들 스스로 認定했  
듯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sup>77)</sup> 「合營法」을 制定할 수 밖에  
없었던 데서도 證明이 된 것처럼 北韓이 더이상 閉鎖政策을 固守  
할 수 없을 만큼 經濟體制가 發展 戰略面에서 限界에 도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經濟改革의 必要性은 절실한 것이나, 改革 實施의  
열쇠를 쥐고 있는 金日成의 態도와 政治·社會狀況에 비추어 봤을 때  
는, 現 金日成 體制下에서 經濟改革이 實施될 可能性은 稀薄하다고  
結論지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sup>78)</sup> 1980年度 以後 東歐 CMEA國  
家들의 經濟狀況에 미루어 봤을 때는, 北韓이 金日成의 意圖대로  
現體制를 그대로 固守하면서 現在의 經濟難國을 克服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단정적으로 結論지을 수 없는 問題이다.

여기서 北韓의 經濟改革을 長期的으로 展望해 볼 경우에, 重要한  
變數는 金日成의 死亡과 金正日의 權力世襲이다.

즉, 北韓에서도 執權者가 交替되면서 새 執權者가 自身の 基盤構

---

註 77) Loc. cit.

78) 前記, p.30.

築을 위한 政治構造 改編과 國民들의 消費生活水準 向上慾求의 충족을 위해 經濟改革을 고려할 可能性이 높아질 수 있다. 물론 金日成이 10年以上 공을 들여가면서 内外의 비난을 무릅쓰고 金正日에게 權力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金正日이 現在 金日成體制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하며 또 金正日이 그렇게 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므로, 金正日이 完全히 權力世襲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狀況이 바뀔 것이라고 무조건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金日成이 죽고 나면 반드시 金正日이 金日成體制를 그대로 따르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金日成의 死亡은 個人的 죽음 뿐만 아니라 北韓의 政治構造에서 抗日鬪爭과 6.25 동란의 세대가 물려가고, 이들보다는 安定追求와 實用的 思考, 志向的인 技術官僚層이 實質적으로 第1線에 擡頭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sup>79)</sup> 또한 金正日是 金日成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金日成式의 統治方式을 그대로 維持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金日成 死亡後 北韓의 政治·社會狀況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는 金日成-金正日 父子世襲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당수가 현재 金日成 體制下에서는 그의 權位때문에 걸어로 드러내질 못하지만,<sup>80)</sup> 일단 金日成이 죽고나면 그 불만을 표면화시킬 可能性이 많다는 것이다.

註 79) 朝鮮日報, 1985. 6. 5., p. 5, "21世紀...오늘의 展開(11) - 90年代는 南北韓交流時代" 參照.

80)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에서는 父子世襲에 反對하는 소동이 여러차례 일어났으며, 사상범수용소에 수용된 자들의 상당수가 父子世襲에 反對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金正日은 자신의 權力基盤을 安定시킬 수 있는 突破口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國民들의 消費生活 水準을 向上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支持를 獲得하고, 技術官僚들의 主張에 많은 귀를 기울여 그들의 支持 또한 얻는것이 되든가, 아니면 軍部の 支持를 얻어 金日成보다도 더욱 強力한 統制社會로 北韓을 이끌어 가든가, 둘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만약 金正日이 後者の 代案을 擇한다면 北韓에서 現在와 같은 水準以上の 政策變化를 期待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前者의 代案을 擇할 경우에는 實質的인 經濟改革을 考慮할 可能性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金正日이 世襲 즉시 確固한 權力基盤을 다질 수 있게 된다면 또는 金正日이 反對勢力에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면 北韓의 經濟改革 可能性은 더욱 長期的으로 判斷해야 될 問題가 된다. 이 경우 北韓의 經濟改革 可能性 判斷은 아주 힘들게 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假定해 볼 수 있는 하나의 展望은, 어떤 경우이든 현재의 金日成體制와는 다른 體制로 北韓社會를 이끌어 가게 될 때, 그 새로운 體制에 대한 國民들의 支持를 얻기 위하여 金日成體制下에서의 經濟運用方式과는 다른 發展戰略을 摸索하게 될 것이라는 點이다.

### 3. 展 望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같이 北韓에서 經濟改革의 可能性을 끄집어

낼 수 있는 政治的 動機는 다음 두가지 경우이다. 첫번째는 金日成이 金正日의 權力基盤을 構築해 주는 方案의 하나로 金正日이 主導하는 輕工業革命, 人民奉仕革命을 支援하기 위해 經濟發展戰略을 修正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金日成이 死亡하고 金正日體制가 들어서면서 權力基盤을 다지는 過程에서 經濟改革 必要性이 높아지는 경우이다.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지 北韓이 經濟改革을 實施하게 된다고 假定했을 때 과연 어떤 內容으로 推進하게 될 것인가를 判斷하는 데는 다음 몇가지 變數가 먼저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첫번째는 神格화된 金日成 偶像化가 經濟改革에 미칠 수 있는 影響이다.

北韓社會는 1960年代 中半 金日成이 政治制度化 作業을 마무리한 以後 現在까지 전적으로 金日成 偶像化에 基礎를 둔 唯一主體 思想에 의해 이끌어져 왔다. 따라서 北韓의 經濟改革은 基本的으로 이같은 既存 經濟精神과의 關係가 考慮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차라리 金日成이 직접 經濟改革을 實施하게 된다면 그 內容이나 推進力面에서 安定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經濟改革은 그것을 支持해 줄 수 있는 確固한 政治的 勢力이 必要한 것인데, 現在 金日成이 北韓社會에서 갖고있는 「카리스마」(Charisma)가 바로 그러한 役割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81)</sup> 반면에 金正日體制나 다른 勢力에 의해서 經濟改革이 推進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도 뿌리깊게 남아있을 既存 經濟精神과 改

---

註8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 17, 1985. p. 29.

革論理와 矛盾에 따른 混亂을 收拾할 수 있는 能力에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앞에서指摘한 바와 같이 金日成이 직접 經濟改革을 實施할 可能性은 稀薄하다. 後者の 경우에는 經濟改革을 實施할 可能性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같은 制約要因에 의해 그 內容이나 推進力은 貧弱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現在 北韓의 經濟政策과 經濟改革과의 關係이다. 지금 北韓은 金正日의 主導下에 「輕工業革命」과 「人民奉仕革命」이란 「슬로건」(Slogan)을 내걸고 消費物資의 生産과 流通機構를 擴大하는 措置를 취하고 있는데, 만약 經濟改革을 實施하게 된다면 이같은 措置를 더욱 擴大해 나가는 方向으로 推進될 可能性이 높다. 그런데 이같은 住民生活向上을 目標로 한 措置들은 지금까지 극도로 抑制해 온 北韓住民들의 消費慾求를 刺戟해서 爆發적으로 增大시킬 可能性이 있으며, 이는 北韓 經濟建設戰略의 重點이 되고 있는 採取工業, 機械工業등 重工業部門과 輸送, 電力등 社會間接資本部門, 4大自然改造事業, 紀念碑的 建造物 建設事業등 막대한 資本의 投入을 要求하고 있는 既存 事業과 限定된 資源을 놓고 深刻한 葛藤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sup>82)</sup>

따라서 北韓이 經濟改革을 實施하게 된다면 하더라도 여하히 이같은 葛藤을 調整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問題點으로 擡頭될 것이며, 이것이 改革의 內容을 상당히 壓迫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外部環境과 北韓의 經濟改革과의 關係이다. 이미 앞에

---

註 82) 玉城 素, 北朝鮮の開放政策は本物なのか, 世界週報, 東京: 時事通信社, 1985. 9.3., pp. 28-30.

서指摘했듯이 北韓의 經濟改革에 社會主義 國家들이 미칠 수 있는 影響은 상당히 制限的이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水準의 經濟改革을 推進하고 있는 中共과 더불어 蘇聯도 經濟改革에 적극적으로 되면 北韓이 經濟改革을 實施하는데 상당한 影響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北韓의 經濟改革에 影響을 줄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해 볼 수 있는 것은 西方諸國의 態度이다. 어쩌면 北韓의 改革推進에는 社會主義 國家들보다도 西方의 態度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實際로 더 많은 影響을 미칠 것으로 判斷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즉, 北韓이 經濟改革을 實施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그 改革推進에 따른 成果를 거둬야 하는 것인데, 現在 北韓의 內的資源은 不足하고 蘇聯이나 東歐諸國은 물론 中共의 經濟事情이 北韓을 도와줄 만큼 餘裕가 없기 때문에 北韓은 하는 수 없이 西方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란 점이다.

이같은 觀點에서 볼 때 北韓이 西方國家들중 經濟的인 面에서 가장 관심있는 나라는 日本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北韓은 美國과도 關係改善을 바라고 있지만 이는 駐韓美軍 撤收, 北韓의 國際的 孤立脫皮 등 주로 政治外交의 側面에서이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에 北韓은 주로 經濟的 協力を 強力하게 希望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83)</sup> 하지만 日本 經濟界의 立場은 사실 北韓과의 經濟協力を 별로 내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

---

註 83) 東亞日報, 1985. 9. 26., p. 4.

다수 日本 企業들은 現 北韓의 經濟能力에 비추어 볼 때, 對北韓 投資에서 收益性을 제대로 保障받을 수 없다고 判斷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北韓은 中共에 비해 內需市場이 狹小하고, 70年代에 外債不履行이 빈번했으며, 지금까지 發展戰略上 投資의 優先順位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현재 많은 技術官僚가 政治一線에 등장하긴 했으나 그들이 지금까지 부르짖어 온 自力更生과 對外開放과의 矛盾을 克服하여 나갈 수 있을지 北韓 對外開放政策 管理 및 運用能力에 대해서도 懷疑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84)</sup>

그러나 最近 「나카소네」首相 執權以後 日本은 經濟大國의 位置에 걸맞는 政治大國으로 되는 것을 強力하게 希望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日本이 經濟的 利益보다는 對北韓 政治的 影響力 増大를 위해 經濟協力을 推進할 可能性도 무시할 수 없다.<sup>85)</sup> 그리고 北韓이 日本에 大規模의 經濟協力을 要請한데는 이같은 日本의 政治的 속셈이 考慮됐을 可能性이 높다. 이 점을 시사하듯 報導에 의하면 1985年9月 日本 「通産省」管轄 研究機關인 「아시아」經濟研究所 要員일행이 北韓의 要請으로 平壤을 訪問하여 調查活動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sup>86)</sup>

사실 社會主義 國家들의 立場에서는 日本의 經濟運用方式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社會主義 國家들의

---

註 84) Asian Wall Street Journal, 1984. 10. 11. p.1,7.

85) 「「나카소네」日首相의 韓國記者團과의 會見」, 한국일보, 1985.6.14., p.14.

86) 東亞日報, 1985. 9. 27., p.4.

經濟改革要素中 중요한 하나가 企業의 自主管理制度를 實施하면서도, 企業과 勤勞者의 責任性を 계속 높여가는 것인데, 이러한 企業運營方式이 가장 잘되고 있는 나라가 日本이기 때문이다. 그 까닭에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이미 여러차례 調査團을 日本에 派遣, 이 같은 日本의 企業管理方式을 研究토록 하여 實際 經濟政策 樹立에 應用해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sup>87)</sup> 中共도 그들의 經濟改革 代案 樹立에 日本의 각 研究所와 政府部處의 助言을 상당히 많이 反映해 온 것이다. 그리고 最近에는 「고르바초프」執權以來 經濟改革에 보다 많은 關心을 쏟고 있는 蘇聯도 生産管理 現代化 및 工業化 促進을 위해 日本側의 協力を 要請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88)</sup>

이같은 觀點에서 볼 때, 北韓의 經濟改革을 展望하는데 考慮해야 될 重要的 變數는 日本의 役割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具體的으로 北韓과 日本의 經濟協力이 어떻게 進行될 것인지, 또한 北韓이 經濟改革을 推進하게 될 경우 日本으로 부터 얼마만큼 助言을 얻게 될지는 豫測하기 힘든 段階지만, 北韓도 앞으로의 經濟計劃 樹立에 있어 日本의 企業管理方式에 많은 관심을 갖고 日本과 보다 幅넓은 協力を 希望하고 있는 것은 分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以上 살펴본 點들을 考慮하여,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改革 經驗을 통해서 北韓이 어떠한 內容의 改革을 推進할 것인가 하는

---

註 87) .Sacks, Op.cit., pp. 8~9.

88) 朝鮮日報, 1985. 12. 10., p. 4.

政策代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豫想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北韓은 生産手段의 所有制度에 대한 改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社會主義體制의 가장 根本인 所有制度의 國有化, 集團化에 대한 改革은 엄청난 改革意志를 要求하는 것이나, 金日成이 改革을 推進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이 構築해 온 體制의 마지막 기둥까지 뽑아버리는 所有制度의 改革을 實施할 可能性이 稀薄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經濟改革을 實施하는 集團의 推進力이 弱하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에도 所有制度의 國有化, 集團化 原則은 그대로 놔두고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國家財産 및 社會財産의 勞動者 信託概念을 導入, 小規模 生産手段의 私有를 默認한 다든지 小規模 企業의 運營을 勞動者들 自律에 大幅 맡김으로써, 實質적으로는 生産手段의 私有를 認定하는 方法을 擇한 可能性이 있으나, 이같은 改革도 經濟改革이 상당히 推進된 以後라야 可能할 것이다.

둘째, 經濟的 意思決定體制의 改革은 初期에는 行政的 分權化를 위주로 推進하면서 차츰 經濟的 分權化를 擴大해 나가는 方向으로 推進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實施하고 있는 地方豫算制와 獨立採算制를 더욱 擴大하고 內實을 기하며, 勞動意慾을 높이기 위한 物質的 刺戟手段의 效果를 높일 수 있는 措置를 취할 것이다.

그와함께 北韓은 生産性を 높이기 위해 中共과 같은 生産責任制를 工業 및 農業部門에 導入할 可能性이 높다. 그리고 生産責任制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現在 小規模로 열리는 自由市場의 規模나 機能을 擴大한 다든지, 일부 產品의 價格決定을 市場의 機能에 맡기는

措置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같은措置들에 의해서 勞動者의 賃金中에서 獎勵金 등 成果給이 차지하는 比重은 높아질 것이다. 投資에 있어서도 企業의 自律權이 增大되어 小規模 企業은 自體留保利潤이나 銀行의 信用에 의한 投資를 많이 活用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銀行機構를 活性化하는 措置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現在와 같은 中央의 計劃에 의한 經濟活動의 統制는 改革實施後에도 상당기간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지금까지 北韓 經濟體制가 워낙 統制的이고 閉鎖적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經濟改革 措置에도 北韓經濟가 견잡을 수 없는 混亂에 빠질 가능성이 많으며, 이미 東歐諸國이나 中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物質的 動機에 의한 經濟運營은 北韓社會가 目標로 하고 있는 「平等」과 어긋난 所得의 不均衡을 惹起시킬 소지가 많으므로, 이같은 問題를 어떻게 緩和시킬 수 있는가 하는 代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經濟活動에 대한 黨과 行政機關의 統制를 緩和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下級單位에 대한 細部指針은 많이 緩和될 것이다. 그리고 價格體系의 改革은 앞에서 말한대로 生産責任制 導入과 함께 部分的으로 實施할 수 있을 것이나, 價格改革自體가 아주 複雜하고, 市場機能을 전적으로 導入하지 않는 한 國家政策上 計劃과 現實經濟, 또는 經濟의 各 部門間的 均衡을 維持하기 위해서 重要한 生産品은 國家決定價格으로 놔둘 必要가 있기 때문에, 實質的인 價格改革 역시 상당기간이 經過한 후라야 可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換率에 있어서는 國際經濟 變動이 北韓經濟

에 파급되는 效果를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現在와 같은 複數 換率制를 계속 維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北韓은 效率性を 높이기 위해 各 企業間 競爭을 利用할 것이나, 生産·流通構造가 改善되어 市場機能이 擴大되지 않는 한, 주어진 計劃目標을 어느정도 達成했느냐에 그칠 것이다.

對外經濟協力에 있어서 北韓은 그 必要性을 다른 어떤 部門보다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지만, 開放化에 따른 北韓社會의 衝擊과 잘못하다가는 期待한 效果는 커녕 外債만 累積되는 結果를 우려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西方이 北韓에 進出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건이 造成되기 전까지는 「合營法」實施를 조금씩 擴大해 나가는 것 외에 基本方針이 지금과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西方이 北韓에 먼저 接近한다면 北韓은 의외로 對外經濟協力面에서 積極的인 態度로 나올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이 경우에 北韓의 對外經濟協力 形態는 現在까지는 北韓이 否定하고 있지만 中共과 같은 經濟特區를 設置하여, 外國과 合作企業을 設立해서 값싼 勞動力을 利用 生産品을 輸出하는 方法이 가장 有力하다고 볼 수 있다.

왜 나하면 이같은 形態의 協力方式이 對外開放에 따른 北韓社會의 衝擊을 줄일 수 있으며, 外債負擔도 주지 않고, 合作企業을 통해 北韓經濟가 必要로 하는 管理方法이나 先進技術을 부수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以上 살펴본 내용과 같은 經濟改革을 北韓이 實施했을 경우, 北

韓經濟에 어떠한 效果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改革內容을 豫想하는 것보다 훨씬 더 長期的인 問題이며, 그만큼 考慮해야 될 變數도 많다. 왜냐하면 經濟는 어떠한 措置를 취하건 간에, 量的으로는 短期間內에 어느정도 成果를 거둘 수도 있으나, 質的인 變化는 상당히 오랜 期間이 지나야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通例이며, 北韓이 經濟管理의 全部門에 걸쳐 經濟改革을 實施하지 않는 이상, 그 나타난 結果가 과연 어떤 요소에 의한 것인지 判斷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對外開放政策에 따라 새로운 「볼트」製造機械를 西方으로 부터 들여왔을 경우, 그 機械에 의해 生産된 새로운 製品價格을 價格當局이 임의로 높게 策定한다면, 外形的으로는 그 機械의 生産性 增大에 대한 寄與가 큰 것이 된다. 그러나 「볼트」製造機械와 연관된 다른 部門은 과거의 生産「시스템」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다면, 새로운 「볼트」生産品은 在庫가 쌓이게 되고 멀지않아 그 機械는 能力以下の 操業을 하게 되거나 아예 쓸모없는 機械가 되고 만다. 이같은 例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東歐諸國이나 中共에서는 흔히 發生하여 온 것이다.

한편, 앞서서도 指摘했듯이,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의 경우 經濟改革은 經濟가 어느정도 産業化되어 있거나 國內 賦存資源面에 어느정도 餘裕가 있을 때 成功할 確率이 높았다. 이같은 사실이 모든 國家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觀點에서 본다면, 北韓도 工業部門에서는 어느 정도 産業化를 이룩해 온 것은 사실이나 그 質的인 水準에 있어서는 技術의 落後로 상당히 뒤떨어져 있고,

전반적 産業構造는 重工業部門에 偏重 歪曲되어 있으며, 國際的 基準에서는 北韓도 資源, 특히 「에너지」資源이 不足한 實情이기 때문에, 앞에서 豫想한 制限的인 經濟改革만으로는 큰 成果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경우도 經濟改革에 의해 短期的으로 中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生産增大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나, 이같은 量的인 成長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經濟難局에 빠지게 될 可能性이 높다.

여기에 더해 東歐諸國이나 中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各種 副作用이 北韓에서도 發生한다면, 經濟改革에 따른 成果를 期待했던 改革推進者들은 失望에 빠지게 되고, 國民들은 改革의 成果에 疑問을 갖게 되며, 改革反對派들의 공격은 더욱 드세질 것으로 展望할 수 있다.

이때, 北韓이 經濟改革을 계속 推進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의 統制經濟體制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당시 政治指導層이 어느 정도 經濟改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北韓을 둘러싼 國際政治狀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도 많은 影響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V . 맺 음 말

社會主義 國家들이 經濟改革을 考慮하게 된 가장 根本的인 理由는 現代의 經濟發展 및 運用의 複雜性이 社會主義의 中央執權의 計劃體制로서 다룰 수 있는 限界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 結果로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는 長期 經濟成長 展望이 不透明하고, 生産性은 낮으며, 技術革新은 缺如되어 있고, 住民들의 生活水準은 낮은 經濟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社會主義 國家들 중에서 가장 오랜期間 동안 幅넓은 經濟改革을 推進해 온 「유고슬라비아」는 1980年 「티토」死亡以後 中央의 權力空白 狀態속에서 各 聯邦과 産業部門이 제나름대로의 經濟政策을 推進해 온 結果, 많은 部門에서 否定的 經濟現像이 일어나고 있으며, 中共도 意慾的으로 推進했던 經濟特區가 期待한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1984年 10月의 經濟體制 改革以後 外換保有高 減少, 物價上昇, 投資部門에 있어서 浪費, 賃金體制的 混亂, 各種 不正腐敗가 發生하여 改革推進者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는 1956年以後 계속 「카다르」政權이 維持되면서 經濟改革에 대한 理解를 가지고 推進해 온 結果 現在 東歐 CMEA 國家들중에서는 높은 所得水準을 누리고는 있으나, 과다한 外債와 成長率 鈍化, 「인플레이」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經濟改革은 社會主義 國家들이 經濟問題를 解決하는데 어느정도 效果를 가져온 것인가,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中共등 經

濟改革의 先鋒에 서있는 세나라가 겪는 否定的 經濟現像은 어떻게 解析해야 될 것인가, 社會主義 國家들이 經濟難國을 克服할 수 있는 效果的인 代案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問題가 疑問으로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

經濟改革이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成長과 效率性 向上에 寄與한 效果를 具體的으로 檢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나 「헝가리」의 政治指導者들은 물론 대부분의 西方專門家들은 經濟改革이 그들 나라의 經濟發展에 도움이 됐다고 評價하고 있으며, 中共도 비록 짧은 期間동안이었지만 改革의 成果에 대해 肯定的 評價를 내리고 있다.

經濟改革을 推進하고 있는 이 세나라는 지금 社會主義와 資本主義 두 의자 사이에 불편하게 끼어 앉아 있는 狀態이다. 國家所有, 集團所有의 社會主義를 拋棄하지 않은 狀態에서 한쪽 구석에 資本主義를 심어놓고 그것이 화려한 꽃을 피워주길 기다리고 있지만 根本的인 經濟問題 解決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點을 考慮했을 때 社會主義 國家들이 그들이 겪고 있는 經濟難國을 克服할 수 있는 길은 經濟管理가 複雜한 經濟現實에 제대로 適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市場과 價格機能을 모든 部門에 導入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中共도 아직까지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는 生産手段의 所有制度를 改革하여, 私有財産을 認定함으로써 勤勞意慾을 鼓吹시키지 않고서는 根本的인 經濟問題 解決이 不可能하다. 그리고 窮極的으로는 東·西間 經濟協力 機會가 擴大되도록 兩體制가 努力하는 것이 必要하다.

社會主義 國家들중에서 北韓은 經濟改革에 가장 소극적이다.

그것은 北韓의 經濟體制는 물론 唯一主體思想에 支配되는 非合理的 政治·社會體制가 經濟改革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며, 특히 南韓의 赤化野慾에 따른 과도한 軍事費 負擔, 南韓에 대한 經濟力 劣勢의 辨明으로 내세우는 自力更生, 金日成의 現體制에 대한 過信 등이 北韓經濟가 經濟改革을 必要로 하면서도 實現되지 못하는 重要的 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體制下에서는 北韓이 經濟改革, 특히 積極的 對外經濟開放政策을 實施할 可能性은 稀薄하다.

長期的으로 봤을 때는 北韓도 金日成이 죽고난 후, 金正日이 자신의 權力基盤을 確保해 나가는 過程에서 經濟改革 可能性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이 經濟改革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意思決定의 行政的 分權化, 價格體系의 部分的 改編, 獨立採算制 實施 強化, 現在의 自由市場 機能의 擴大등 단편적이고 部分的인 改革에 그칠 것이다. 이와같은 改革措置에 의해 北韓經濟가 短期的으로 量的 成果를 거둘 수도 있으나 다시 새로운 經濟沈滯에 빠지게 될 可能性이 많다.

이때 北韓은 改革의 持續이나, 以前體制로 復歸나 하는 決定을 내리게 될 것이다. 한편, 西方이 먼저 北韓에게 經濟改革의 強力한 誘因이 되는 好條件의 資本과 先進技術을 가지고 接近하는 外部의 努力이 동시에 作用된다면 北韓의 經濟改革 可能性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이 積極的으로 經濟改革을 實施하게 된다면 그 結果로 經濟

體制뿐만 아니라 政治社會體制에서도 變化가 일어날 것이다. 北韓의 黨政指導階層은 이같은 可能性을 最少化하려고 努力하겠지만 教條적이고 閉鎖적인 政治社會體制와 經濟改革은 兩立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같은 變化에 따라 韓半島 緊張緩和에 도움이 되는 肯定的인 效果를 期待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바로 北韓이 對韓國 戰略變化를 가져올 것이라고 結論지을 수는 없다.

北韓이 赤化野慾을 拋棄하지 않는다면 北韓과 西方間의 經濟協力は 北韓의 軍事力增強에 도움을 주게되어 韓國에 대한 北韓의 威脅은 오히려 더 增大될 것이다.

또한 北韓이 韓國보다도 더 값싼 勞動力을 바탕으로 西方과의 合作을 模索한다면 海外資本誘致 및 一部品目の 輸出에 있어서 韓國과 北韓은 競爭關係에 서게 될 可能性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韓國의 立場에서는 北韓의 經濟改革 實施가 가져올 수 있는 兩面的인 結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韓國은 北韓의 經濟改革에 따른 北韓社會의 開放을 誘導하면서 동시에 改革이 가져올 수 있는 否定的 效果를 最少化시킬 수 있는 方案을 模索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봤을 때 먼저 南北韓間의 交流와 協力を 통해 相互間 信賴를 構築한 다음 西方이 北韓에 進出하는 것이 合理的인 順序일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 問題가 때때로 當事者들의 意圖대로만 되지 않았던 經驗을 거울삼아 周邊國際情勢의 움직임을 항상 注視를 하고 事前對備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며, 北韓의 經濟體制 變化動向 또한 면밀히 分析해서 對策을 講究해야 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書 籍

- 經濟學大辭典，서울：博英社，1974.
- 國土統一院，蘇聯의 經濟危機가 COMECON에 미치는 影響，1982.
- \_\_\_\_\_，北韓 金正日體制的 政策方向에 대한 研究，1983.
- \_\_\_\_\_，北韓 合營法과 經濟開放化 展望，1984.
- \_\_\_\_\_，南北韓經濟交流協力 實踐方案，1984.
- \_\_\_\_\_，南北韓 經濟現況 比較，各年版
- 리명서，정태식 共著，政治經濟學 常識(2)，(3)，平壤：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馬洪，中國經濟發展의 新戰略，張風波 譯，東京：有斐閣，1985.
- 社會科學院 經濟研究所，經濟辭典，平壤：社會科學出版社，1970.
- 徐極性，北韓의 經濟實狀，서울：民族統一中央協議會，1985.
- 延世大 東西問題研究院，東歐 政治·經濟·社會論，서울：博英社，1985.
- 李承潤，東歐 共產諸國의 經濟體制變化에 관한 研究，서울：國土統一  
院，1980.
- 日本貿易振興會，調查資料，北朝鮮의 經濟貿易と 展望，1984.
- 日中經濟協會，中國의 現狀と 成長力，1982.
- 朝鮮中央年鑑 1984年，平壤
- A. Eckstein，中國의 經濟革命，石川 滋譯，東京：東京大學出版會，1980.
-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1984,1985，香港：香港華潤貿易諮詢有限公司

- A.H. Smith, The Planned Economies of Eastern Europe, London: Croom Helm, 1983
- A.G. Gruchy, Comparative Economic System, Boston: Houghton Hifflin, 1977
- A. Zwass, The Economies of Eastern Europe, London: Macmillan, 1984
- Chung, Joseph Sang-Hoon,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 G. Grossman, Economic System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4
-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S., Chinese Economy Post-Mao, Washington ,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2nd ed., Chicago: Aldine, 1972.
- Kihl, Young-whan,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Regimes in Contest, London: Westview Press, 1984
- J. Thoruton, Economic Analysis of the Soviet-type 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8
- M. Bornstein,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Models and Cases, Homewood: Richard D. Irwin, 1979
- M. Bornstein, eds., The Soviet Economy: Continuity and Change,

-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6
- P.G. Hare, H.K. Radice, W. Swain, eds., Hungary; A Decade of Economic Reform,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1.
- P.T. Knight, Economic Reform in Socialist Countries, the World Bank Report No.579, Washing, D.C., 1983
- S.R. Sacks, Self-management and Efficiency; Large Corporation in Yugoslavi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3
- Su Wenning, Economic Readjustment and Reform, China Today(3), Beijing Review Special Feature Series, Beijing: Beijing Review, 1982
- Su Wennig, Modernizations - the Chinese Way, China Today (6), 1983.
- U.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4,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hina's Economy and Foreign Trade 1981-85,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 論 文

- 金永圭, “自力更生の 限界를 드러낸 것인가”, 統一, 1984年10月號
- 金學俊, “周邊國의 韓半島의 緊張緩和方案 學論과 우리의 對策” 政策研究, 1985年3月號
- 朴斗福, “中共의 新經濟政策; 經濟政策의 調整改革과 對韓影響을 中心으로”, 中蘇研究, 第7卷1號, 1983年 봄號

- 辛昇哲, “中共의 經濟改革과 新經濟政策路線”, 中蘇研究, 第 8 卷 3 號,  
1984 年 가을號
- 辛昇哲, “東西間 經濟收斂化와 經濟交流 및 協力; 中共, 北韓과의  
經濟的 接觸을 中心으로”, 中蘇研究, 第 9 卷 1 號, 1985 年봄號
- 吳文煥外 3 人, “共產國의 經濟改革”, 共產圈研究, 1982 年 2 月號
- 平泉公雄, “ハン가リー經濟改革と外國貿易”, 經濟研究, 東京: 岩波書店,  
Vol. 31, No. 4, 1980 年 10 月號
- 한인호, “經濟管理에서 獨立採算制를 實施하는 것은 우리 黨의 一  
貫한 方針”, 근로자, 平壤: 근로자사, 1985 年 2 號
- G.A. Mark, "Hungarian Consumers and the New Economic Mechanism", East European Quarterly, Vol.16, No.1, Mar. 1982
- H.H. Höhmann, "East European Economies 1981-1984: Growth, Reform and Foreign Trade Problems", Berichte des Bundes Institute Series, July 1985
- Hiroshi Oda, "The Administration of Foreign Trad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veloping Economies, Vol.22 No.2, Jan. 1984
- K.C. Yeh 外, "The Readjustment in the Chinese Economy", The China Quarterly, No. 100, Dec. 1984.
- M. Bornstein, "Improving the Soviet Economic Mechanism", Soviet Studies, Vol.37, No.1, Jan. 1985
- M. Lavigne, "The Soviet Union inside COMECON", Soviet Studies, Vol.35, No.2, Apr. 1983

Park, Sung-jo, "Competition of Socialistic Countries in the Region of East and Southeast Asia: with Special Reference to China's and North Korea's Opening Strategy", 東西研究, 第14卷1號, 1985年 春- 여름號

P.G. Hare, "The Beginning of Institutional Reform in Hungary", Soviet Studies, Vol.35 No.3, July 1983

R.A. Clarke, "The Study of Soviet-type Economies; Some Trend and Conclusions", Soviet Studies, Vol.34, No.2, Apr. 1982

S.R. Schram, "Economies in Command? - Ideology and Policy Since the Third Plenum, 1978-84", The China Quarterly, No.99, Sep. 1984

V.F.S. Sit, "The Special Economic Zone of China; A New Type of Export Processing Zone?", The Developing Economies, Vol.23 No.1, Mar..1985

○ 其 他

金日成, 會見記錄, "解放四〇年を迎えて", 世界, 東京: 岩波書店, 1985年 8月號

岩重弘, "北韓訪問記", 朝日新聞, 連載, 1985.5.14~6.5.

鈴木啓介, "ゴルバチョフなら何か へてくれる; ソ聯經濟活性化の鍵は

‘人的要素’", 世界週報, 東京: 時事通信社, 1985.11.12.

玉城素, "北朝鮮の開放政策は本物なのか", 世界週報, 1985.9.3.

"An Interview with Deng Xiaoping", TIME, Nov. 4, 1985

"China's Changing Imag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 21,

1985

"Inside COMECON-A Survey", The Economist, Apr. 2, 1985

"Russia under Gorbachev", The Economist, Nov.16, 1985

"The Marxist World-Lure of Capitalism", U.S. News & World  
Report, Feb. 4, 1985

Zhao Ziyang, "Report on the Sixth Five-Year Plan", Beijing  
Review, No.51, 1982

EIU, Quarterly Economic Review-China, North Korea, No.2, 1985

